

# 가시화된 미래: 오래된 현실을 진단하다

CDP Korea Climate Change Report 2016

Written on behalf 827 of investors with US\$100 trillion in assets



---

Report Sponsor



---

Korean Partner to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http://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

Korean Scoring Partner



**EY한영 [www.ey.com/kr](http://www.ey.com/kr)**

EY는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자문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국내 유일 회원법인으로서 약 1,700명의 전문가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Y CCoSS팀은 CSR/지속가능경영 수준 진단 및 전략 수립, EHS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CS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청정 에너지, 국제개발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자문 및 개발도상국 지속가능성장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CDP Korea Climate Change Report 2016

Writer: 김태한, 이종오, 강가경, 장혁수, 구형남, 김지선, 최강호

Design & Publication: 화소



이 보고서는 FSC 인증을 받은 한솔제지 고급인쇄용지 '몽블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솔제지는 환경마크, FSC 인증, 탄소성적표지인증 등 다양한 친환경인증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Contents

발간사 - 장지인, 위원장 / CDP한국위원회	02
CEO Foreword - Paul Simpson, Chief Executive Officer / CDP	03
Investor Commentary - 한동우, 대표이사 회장 / 신한금융그룹	04
발간축사 - 홍일표, 국회의원 / 국회기후변화포럼 · 국회CSR정책연구포럼	05
발간축사 - 이원욱, 국회의원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06
Partner Commentary - 서진석, 대표이사 / EY한영	07
2016 Korea Leaders	08
The Climate A List 2016	10
새로운 CDP 평가시스템 도입	13
뉴노멀 <sup>New Normal</sup> - 글로벌 자본시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14
CDP, 저탄소 경제의 연결고리	15
한국,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제도적 준비 시작	16
Korea Overview	18
Global Executive summary	22
섹터별 분석	27
주요통계	51
부록 I. CDP investor signatories and members	56
부록 II. CDP Korea investor signatories	57
부록 III. CDP 2016 그룹사별 참여현황	58
부록 IV. CDP 2016 Korea 200 기업별 현황	59



2016 기업별 전체 응답내용 보기  
[www.cdp.net](http://www.cdp.net)

##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 Worldwide(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16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EY한영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EY한영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EY한영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SIF, EY한영, CDP, 협력기관, 제휴 회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 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으며, EY한영이 한국평가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 장지인 위원장, CDP한국위원회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도 CDP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런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이에 적극 대응해 탄소경영 성과를 보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전세계 투자자의 기업관여는 더욱 증가하고 강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논의되고 있고, 스톡홀름 코드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탄소경영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우리는 올해 '지옥 같은 여름'을 보냈습니다. 견디기 고통스러운 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태풍 '차바'로 제주·부산·울산 등은 물난리와 해일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영화에서만, 저개발 국가에서만 보았던 두려운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시기 충북 지역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 나라 일로만 이해했던 기후변화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경험은 기후변화가 가져다 줄 재앙의 꼬리였을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 속도가 지구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대재앙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이 각 나라들의 신속한 비준을 거쳐 올해 11월 초에 정식으로 발효된다는 사실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대재앙을 막기 위해 인류가 가장 이성적으로 합의한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CDP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금융과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2003년 처음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시작해 이제는 6000여개에 육박하는 전세계 기업들이 CDP를 통해 자사의 탄소경영 등 환경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CDP 정보는 유엔을 비롯해 구글 파이낸스, 블룸버그 터미널, 독일증권거래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의 SRI 지수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CDP의 평가방법이 Disclosure,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이라는 4단계로 변경되었는데, 기업들이 탄소경영에 대한 단순한 공개를 넘어 이제는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C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이기도 하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올해 CDP에 서명한 금융기관의 수는 827개로, 이들이 운용자산만도 100조 달러에 이릅니다. 전세계 운용 금융자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여부와 수준은 투자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노르웨이 연기금과 유럽 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선도적 금융기관들은 UNEP FI와 CDP가 협력해 만든 포트폴리오 탈탄소제거연합(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에 가입해 투자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04개 투자자들은 CDP의 Carbo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1,300개의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CEO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기업관여(Engagement)를 실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도 CDP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런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이에 적극 대응해 탄소경영 성과를 보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전세계 투자자의 기업관여는 더욱 증가하고 강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논의되고 있고, 스톡홀름 코드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탄소경영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또 인텔, 포드 등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미국 연방조달청과 미국 해군 등 정부기관들이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CDP에 탄소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합니다.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CDP에서 Leadership A를 획득한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193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14개가 당당히 포함되어 글로벌 보고서의 A List에 등재되었습니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편입된 기업은 모두 Leadership A를 획득했고, 탄소경영을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P한국위원회는 이 클럽에 3번 이상 편입된 바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탄소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글로벌 동향에 대한 정보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베스트 프랙티스<sup>best practices</sup>를 공유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CDP한국위원회는 클럽 멤버 기업들의 탄소경영 사례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특히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클럽 멤버 기업만의 특권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탄소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성을 클럽의 지향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 CDP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를 위한 탄소경영 대열에 동참하고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 Paul Simpson

Chief Executive Officer, CDP



측정과 투명성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DP 또한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파리협정의 비준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은 기업에게 저탄소 혁명이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2°C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석연료 시대 종말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완전한 탈바꿈을 선포하였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탄소로 전환되는 세계를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에서 리더가 되느냐 혹은 반대로 현행 경영기조 *business as usual*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규제, 과학 기술의 변화, 소비자 기대와 기후변화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하느냐가 그 선택입니다. CDP 데이터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이미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편에선 이러한 새로운 현실 적응에 노력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자들 또한 다가오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S&P와 STOXX를 비롯한 글로벌 지수index 제 공기관들은 저탄소 지수를 개발하여, 다가오는 저탄소경제 체제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인 뉴욕주 연기금은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CDP 데이터를 바탕으로 20억 (US)달러 규모의 저탄소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수 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승자들과 패자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투자자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전세계 800개 이상의 투자기관(운용자산: 100조 (US)달러)이 CDP를 통하여,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억 (US)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자간의 국제적 연합을 형성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정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잔에 비유하자면, 이미 절반 이상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년 전 CDP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본 시장에서 기후변화 정보공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년 이루어지는 CDP의 정보공개 요청은 기후변화 정보공개가 주류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현재 전세계 시가총액의 60%에 이르는

5,800여 개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CDP는 물잔의 남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의 공개를 주제로 한 새로운 태스크포스 *task force*를 구성하여, 모든 G20 국가에 의무적인 기후변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DP는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CDP 정보공개 시스템에 통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을 위한 핵심 주체입니다. 본 보고서는 파리협정 이후, 기업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간될 CDP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저탄소 경제 전환 수준을 추적하고, 이를 투자자들이 기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자 합니다. CDP 샘플에 포함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포함한) 일부 선도적 기업은, 이미 매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DP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측정과 투명성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DP 또한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파리협정과 UN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업에게 새로운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섹터의 기업에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창출하고, 그 속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정보는 기업, 투자자,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한동우

###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그룹 내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경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경영 이슈에 대한 대응을 전사적으로 준비해나감으로써 세계적인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를 위해 파리협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4일 정식 발효될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의 당사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실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결정기여(NDC)는 BAU 대비 37% 감축으로, 산업계 또한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움직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올해 11월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새롭고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한해 동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술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연간 82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World) 4년 연속 편입, 2016 CDP Climate Change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3년 연속 선정 등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노력 및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금융권 최초 ISO 50001 획득에 이어 올해 ISO 14001의 최신 개정판인 ISO 14001:2015를 획득함으로써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그룹 내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경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경영 이슈에 대한 대응을 전사적으로 준비해나감으로써 세계적인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새롭고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한해 동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술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연간 82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홍일표 국회의원·대표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국회CSR정책연구포럼



CDP는 가장 시장친화적으로 기업의 탄소경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CDP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사 탄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목표와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CDP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CDP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세기 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C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1)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파리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2°C 그리고 1.5°C'는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기후 과학에 철저히 기초해 2002년 발표된,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C 이내가 되어야만 인류는 그나마 지구온난화로 인한 치명적인 대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나 폭설,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올해 11월 초에 공식 발효되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정이 발효가 되려면 지구촌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 배출하는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을 해야 하는데, 세계 총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 비준하고 EU, 인도,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들이 비준함으로써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효된다는 점은 파리 기후협정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이 미흡하다며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를 무역장벽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 사회에서는 탄소경영을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이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투자나 대출도 엄격하게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탄소경영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조달청은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미국 정부의 조달에 참여하는 일정 규모의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CDP를 통해 공개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 해군은 군납 업체들에게 온실가스 관련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평가한 점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 때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기후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달청이나 공공기관들도 미국 연방조달청처럼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에 가입해 탄소경영을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대 국회에서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9대보다 강화시켜 발의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와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은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경영 정보공개 촉진을 골자로 CDP 글로벌 본부와 CDP한국위원회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CDP는 가장 시장친화적으로 기업의 탄소경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CDP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사 탄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목표와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CDP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CDP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탄소 경제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정책 마련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욱

국회의원·대표의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의 대표 의원으로서 탄소경영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인류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대비해 2°C 상승 이하로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 나라들은 그들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하고 이를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 모두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제 합의는 11월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동 비준 이후 EU, 인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비준하여 발효 조건인 55개 이상, 전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정부는 2030년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했습니다. 37% 중 11.3%에 해당하는 96만1000톤은 해외 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입니다. 독립적인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우리나라 감축안에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의 더 담대한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가 뿐 아닙니다.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전환기에 기업들의 운명도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민간 석탄생산 기업인 머레이에너지와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이 두 기업의 CEO가 최근 연방보조금 문제로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설전은 머레이에너지의 CEO인 머레이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2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테슬라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받는 정부 보조금은 석탄업계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다며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행위가 말로 정말 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거대 기업의 이 설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기후변화 시대,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풍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석탄을 규제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탄 수요는 줄고, 이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석탄 가격은 하락하면서 이 산업 분야의 직원

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자 등 전세계 주요 투자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신규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투자된 자금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머레이에너지 CEO, 머레이의 테슬라 비난은 이러한 절박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화답해야 합니다. 여전히 화석연료에 집착하고 OECD 꼴찌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진 우리나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도한 변화의 물결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 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능력, 탄소경영 능력은 나라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과 관련해 전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입니다. CDP는 2003년부터 전세계 나라 기업들의 탄소경영과 물경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기술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오면서 기업의 기후변화와 물 경영 능력과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는 물론 유엔도 CDP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CDP 참여는 저탄소 경제 시대에 기업들의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의 대표 의원으로서 탄소경영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연 구성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닥터 스트레이지'를 보면, 넘어서지 못하고 무한반복하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을 파멸로 이르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리가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라는 무한반복의 오류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는 기업에 응원드리며, 저 또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서진석 대표이사, EY한영



### EY한영은

CDP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한국 평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활동 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지구는 기후변화 감축에 대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체결로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을 강제하는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경영전략과 더불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큰 이슈 중 하나는 기후변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이슈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제 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합의한 파리협약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를 COP21에서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체결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을 강제하는 대외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은, 국내 기업들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제 2기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 이슈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하여 경영전략과 맞물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이 되었습니다.

CDP는 투자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기업, 시장을 대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CDP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자본시장 내 주요 투자 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CDP에 응답하는 국내외 대다수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및 통합보고서 등의 형태로 기업이 재무 정보를 공개 할 때 기후변화 항목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CDP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환경정보 공개 이니셔티브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 5,800여 개 기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CDP에 자발적으로 응답을 원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Supply chain, Forest, Water 등 응답 분야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기업의 다양한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CDP는 Climate Change, Carbon Action Program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포함한 몇몇의 선두기업은 수익 성장을 하는 동안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Y한영은 글로벌 종합 컨설팅사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대응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Service 조직을 구축하여 전 세계 7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정부기관, NGO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활동 및 물,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환경컨설팅 수행을 통해 수익 성장과 더불어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은 CDP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한국 평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활동 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016 Korea Leaders

## CDP Korea Awards

### 2016 CDP Korea 명예의 전당

구분	기업명	현액연도
Platinum Club	SK하이닉스	2013
Gold Club	삼성전기	2014
	삼성물산	2016

### 2016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점수	연속수상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신한금융그룹	Leadership A	3년	
		KT	Leadership A	4년	
		삼성물산	Leadership A	5년	
		현대건설	Leadership A	3년	
		삼성엔지니어링	Leadership A	1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금융	신한금융그룹	Leadership A	4년	
		삼성화재	Leadership A-	6년	
		DGB금융그룹	Leadership A-	2년	
		하나금융그룹	Leadership A-	1년	
	산업재	삼성물산	Leadership A	6년	
		현대건설	Leadership A	5년	
		삼성엔지니어링	Leadership A	2년	
		대우건설	Leadership A-	2년	
	선택소비재	LG전자	Leadership A	8년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1년	
		코웨이	Leadership A-	8년	
	에너지&유틸리티	한국지역난방공사	Leadership A	2년	
		한국전력공사	Leadership A	1년	
	원자재	LG화학	Leadership A	4년	
		포스코	Leadership A-	8년	
		현대제철	Leadership A-	4년	
	제약건강	LG생명과학	Leadership A-	3년	
	통신	KT	Leadership A	7년	
		LG유플러스	Leadership A	3년	
	필수소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Leadership A-	2년	
	IT	삼성전자	Leadership A	8년	
		LG이노텍	Leadership A	2년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1년	
	탄소경영 특별상	신규참여	현대글로벌비스	Leadership A-	
			삼성SDS	Management B	
		자발적 참여	한국동서발전	Leadership A-	3년
			한솔제지	Management B	1년
			한국철도공사	Awareness C	2년

# 2016 Korea Leaders

## The Climate A List Korea 2016



### The Climate A List Korea 2016

기업명	섹터	Level
KT	통신	Leadership A
신한금융그룹	금융	Leadership A
현대건설	산업재	Leadership A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재	Leadership A
삼성물산	산업재	Leadership A
LG이노텍	IT	Leadership A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Leadership A
LG유플러스	통신	Leadership A
LG전자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삼성전자	IT	Leadership A
한국전력공사	유틸리티	Leadership A
LG디스플레이	IT	Leadership A
LG화학	원자재	Leadership A
현대자동차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 CDP Korea Awards<sup>1,2</sup> 각 부문별 선정기준

### 명예의 전당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 기업
- Platinum Club: 명예의 전당 4년이상 유지 기업
- Gold Club: 명예의 전당 1년 - 3년차 기업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평가 기준: 공개점수 50% + 성과점수 50%
- Leadership A 획득 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5개 기업

###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 각 섹터 별, Leadership A 또는 A- 획득 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3개 기업
- Leadership A 획득 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 탄소경영 특별상

#### ▶ 신규참여 부문

- 신규 참여 기업 중 Management B 이상 획득 기업 가운데 상위 3개 기업

#### ▶ 자발적 참여 부문

- CDP Korea 200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CDP를 통한 정보공개에 참여하였고, Awareness C 이상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상위 3개 기업

#### ▶ 동점기업 처리 기준

- 전년 총S+2 배출량 대비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량 비율) 감축활동이 많은 기업에 우선 순위 부여

1.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포함한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선정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Korea 200 대상기업에 한해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시상제도입니다.  
 2.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 한국자문위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 The Climate A List 2016



Company	Country
---------	---------

## Consumer Discretionary

ARÇELİK A.Ş.	Turkey
BMW AG	Germany
Caesars Entertainment	USA
Daimler AG	Germany
Electrolux	Sweden
Fiat Chrysler Automobiles NV	Italy
Gap Inc.	USA
General Motors Company	USA
Groupe PSA	France
<b>Hyundai Motor Co</b>	South Korea
Inditex	Spain
Johnson Controls	USA
Las Vegas Sands Corporation	USA
<b>LG Electronics</b>	South Korea
Michelin	France
Nissan Motor Co., Ltd.	Japan
RELX Group	United Kingdom
Renault	France
Sky plc	United Kingdom
Sony Corporation	Japan
Sumitomo Forestry Co., Ltd.	Japan
Toyota Motor Corporation	Japan
TUI Group	United Kingdom
Yokohama Rubber Company, Limited	Japan

## Consumer Staples

Asahi Group Holdings, Ltd.	Japan
Coca-Cola European Partners*	USA
Coca-Cola HBC AG	Switzerland
Colgate Palmolive Company	USA
Diageo Plc	United Kingdom
Japan Tobacco Inc.	Japan
Kirin Holdings Co Ltd	Japan
L'Oréal	France
Nestlé	Switzerland
Philip Morris International	USA
Pick 'n Pay Stores Ltd	South Africa
RCL Foods Ltd	South Africa

\*Data provided in response relates to Coca-Cola Enterprises, prior to merger with Coca-Cola European Partners.

Company	Country
---------	---------

Reynolds American Inc.	USA
SCA	Sweden
Tesco	United Kingdom
Unilever plc	United Kingdom

## Energy

Compañía Española de Petróleos, S.A.U. CEPSA	Spain
Eni SpALimited	Italy
Galp Energia SGPS SA	Portugal
Neste Corporation	Finland
Vermillion Energy Inc.	Canada

## Financials

Bank Coop AG	Switzerland
Basler Kantonalbank	Switzerland
BNY Mellon	USA
British Land Company	United Kingdom
Caixa Geral de Depósitos	Portugal
CaixaBank	Spain
Daito Trust Construction Co., Ltd.	Japan
Dexus Property Group	Australia
Goldman Sachs Group Inc.	USA
Great-West Lifeco Inc.	Canada
Host Hotels & Resorts, Inc.	USA
HSBC Holdings plc	United Kingdom
ICADE	France
ING Group	Netherlands
Intesa Sanpaolo S.p.A	Italy
Klepierre	France
Lloyds Banking Group	United Kingdom
Macerich Co.	USA
MAPFRE	Spain
National Australia Bank	Australia
Nedbank Limited	South Africa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	Austria
Remgro	South Africa
<b>Shinhan Financial Group</b>	South Korea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Inc	Japan
Stockland	Australia

Company	Country
T.GARANTİ BANKASI A.Ş.	Turkey
The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Japan
UBS	Switzerland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ustralia

### Health Care

AstraZeneca	United Kingdom
Bayer AG	Germany
GlaxoSmithKline	United Kingdom
Lundbeck A/S	Denmark
Mediclinic International	South Africa
Novo Nordisk A/S	Denmark
Roche Holding AG	Switzerland

### Industrials

Abengoa	Spain
Abertis Infraestructuras	Spain
Bic	France
Bouygues	France
Canadian National Railway Company	Canada
CNH Industrial NV	United Kingdom
Ecorodovias Infraestrutura e Logística S.A	Brazil
FERROVIAL	Spain
Grupo Logista	Spain
Huber + Suhner AG	Switzerland
<b>Hyundai E&amp;C</b>	South Korea
INDUS Holding AG	Germany
Kajima Corporation	Japan
Kawasaki Kisen Kaisha, Ltd.	Japan
Kingspan Group PLC	Ireland
Komatsu Ltd.	Japan
Kone Oyj	Finland
Lockheed Martin Corporation	USA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Japan
Nabtesco Corporation	Japan
Obrascon Huarte Lain (OHL)	Spain
Owens Corning	USA
Qantas Airways	Australia
Republic Services, Inc.	USA

Company	Country
Royal BAM Group nv	Netherlands
Royal Philips	Netherlands
Salini Impregilo S.p.A.	Italy
<b>Samsung C&amp;T</b>	South Korea
<b>Samsung Engineering</b>	South Korea
Schneider Electric	France
Secom Co., Ltd.	Japan
SGS SA	Switzerland
Skanska AB	Sweden
Stanley Black & Decker, Inc.	USA
Taisei Corporation	Japan
Toda Corporation	Japan
Toshiba Corporation	Japan
Union Pacific Corporation	USA
Valmet	Finland
Waste Management, Inc.	USA

### Information Technology

Accenture	Ireland
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	Taiwan
Alphabet, Inc.	USA
Amadeus IT Holding	Spain
Apple Inc.	USA
Atos SE	France
Autodesk, Inc.	USA
Canon Inc.	Japan
Cisco Systems, Inc.	USA
EMC Corporation	USA
EVRY ASA	Norway
Hewlett-Packard	USA
Konica Minolta, Inc.	Japan
<b>LG Display</b>	South Korea
<b>LG Innotek</b>	South Korea
Microsoft Corporation	USA
Oracle Corporation	USA
<b>Samsung Electronics</b>	South Korea
Tech Mahindra	India
Wipro	India

Company	Country
---------	---------

### Materials

AkzoNobel	Netherlands
Anglo American Platinum	South Africa
BillerudKorsnäs	Sweden
Braskem S/A	Brazil
Gold Fields Limited	South Africa
Harmony Gold Mining Co Ltd	South Africa
HeidelbergCement AG	Germany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USA
Koninklijke DSM	Netherlands
Kumba Iron Ore	South Africa
LANXESS AG	Germany
<b>LG Chem Ltd</b>	South Korea
Metsä Board	Finland
Mondi PLC	United Kingdom
Novozymes A/S	Denmark
Praxair, Inc.	USA
Sealed Air Corp.	USA
Sibanye Gold Ltd	South Africa
Stora Enso Oyj	Finland
Symrise AG	Germany
The Mosaic Company	USA
ThyssenKrupp AG	Germany
UPM-Kymmene Corporation	Finland

### Telecommunication Services

China Mobile	China
Deutsche Telekom AG	Germany
Koninklijke KPN NV (Royal KPN)	Netherlands
<b>KT Corporation</b>	South Korea
<b>LG Uplus</b>	South Korea
Proximus	Belgium
Swisscom	Switzerland
Telefonica	Spain
Telstra Corporation	Australia

### Utilities

ACCIONA S.A.	Spain
Centrica	United Kingdom

Company	Country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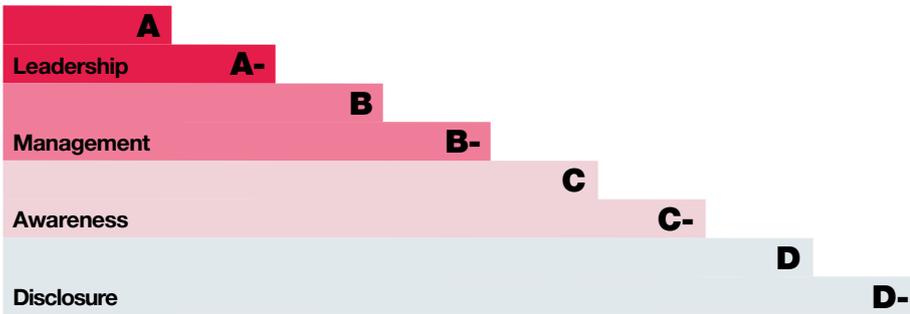
EDF	France
EDP - Energias de Portugal S.A.	Portugal
ENAGAS	Spain
ENEL SpA	Italy
ENGIE	France
Gas Natural SDG SA	Spain
Iberdrola SA	Spain
Iren SpA	Italy
<b>Korea District Heating Corp.</b>	South Korea
<b>Korea Electric Power Corp</b>	South Korea
National Grid PLC	United Kingdom
PG&E Corporation	USA
R.E.E.	Spain
Snam S.P.A	Italy
Suez Environnement	France
VEOLIA	France
VERBUND AG	Austria

# 새로운 CDP 평가시스템 도입

기업의 (관리되지 않는)환경 리스크와 환경 이슈 대응 수준에 대한 정보의 소통은 CDP 미션의 핵심이다.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CDP는 2016년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하고, 각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다음 단계

의 평가가 진행되며, 각 단계 별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Disclosure: 기업 응답의 완성도를 평가; Awareness: 환경 이슈, 위험, 영향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정도를 평가; Management: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기업이 실행한 활동, 정책, 전략을 평가; Leadership: 환경 경영과 관련한 특정 영역에서 모범사례<sup>Best Practice</sup>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는지 여부 평가



Leadership	75-100%	A
	0-74%	A-
Management	40-74%	B
	0-39%	B-
Awareness	40-74%	C
	0-39%	C-
Disclosure	40-74%	D
	0-39%	D-

**F: 기후변화 평가를 위해서 CDP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 부여<sup>1</sup>**

1. 모든 기업들이 CDP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F를 부여 받게 됩니다. 다만, F는 해당기업이 환경경영 또는 환경채무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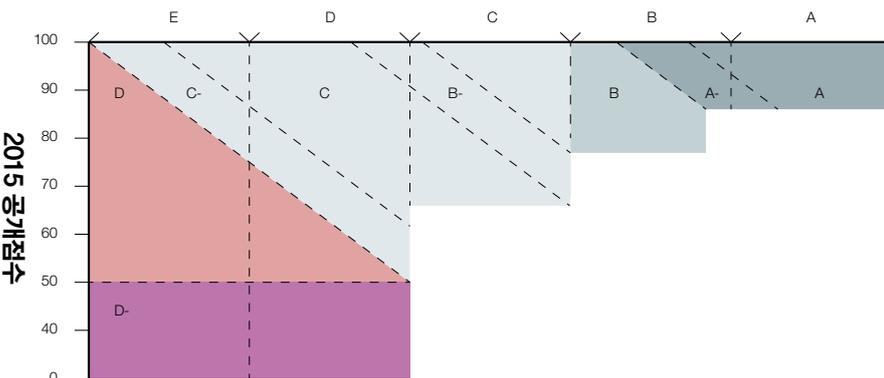
평가방법론은 문항 별 배점 및 채점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각 단계별 점수는 해당 기업이 획득한 점수를 획득 가능한 최대점수로 나눈 값이 백분율로 표기되며,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정수로만 표기된다. 각 단계에서 75% 이상을 획득해야 다음 단계의 평가가 진행되며, 만약 최소 점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의 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최종 등급은 해당 기업이 진출한 가장 높은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에 기반하여 부여된다. 예를 들어, 가령, XYZ기업이 Disclosure 레벨에서 88%를 획득하고, Awareness에서 76%, Management에서 65%를 획득

하였다면, 최종적으로 B가 부여된다. 만약 기업이 진출한 최고 단계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알파벳 등급에 마이너스(-)가 부여된다. 가령, 123기업이 Disclosure에서 76%를 획득하고, Awareness에서 38%를 획득하였다면, 123기업은 C-를 부여 받게 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인 A를 획득하고, A-List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Leadership에서 75% 획득과 더불어, 다음의 추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온실가스 산정에 중대한 배출원의 제위가 없을 것; CDP평가방법론이 인정하는 검증 기준을 사용하여 최소 70%이상의 Scope1과 Scope2 배출량 검증.

## 2015 성과점수



## 전년도 점수와의 비교

2016년 새롭게 도입된 평가시스템은 2015년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접근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요청하는 정보도 상이하다. 따라서, CDP 2015와 CDP 2016의 평가결과는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2015년 점수가 2016년 평가방법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는 CDP 비디오 안내 자료를 통해 점수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좌측 표에 2015년 점수를 대입하여, 현재 평가시스템상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의 비디오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vimeo.com/162087170>

# 뉴노멀 New Normal - 글로벌 자본시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글로벌 자본시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금융기관들의 주식 및 채권 투자, 보험, 여신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09**

UN지속가능증권거래소이니셔티브(SSE) 발족, 전세계 80여개 증권거래소 서명

**2010.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발간

**2014.4**

유럽의회 비재무정보 의무보고 법안 통과

**2014. 9**

포트폴리오탄소소재거연합(PDC) 출범

**2015.6**

노르웨이 연기금 석탄산업 투자철회 발표

**2015. 12**

금융안정위원회(FSB)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보공개 TF 설립

**2015. 12**

유럽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석탄산업 투자철회 및 재생에너지 투자 발표

**2015. 12**

153개 미국 기업 적극적 기후변화 정책 요구 서명 백악관 전달

**2016 10**

We Mean Business: 467개 기업과 183개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약속

기업의 가치는 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가 바라는 혁신을 제공하는 기업은 그 가치가 올라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이를 거래한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SRI)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SRI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류 투자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투자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윤리의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의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났고, 투자자들은 자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나타난 이들 기업의 주가 변화는, 왜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환경, 사회적 요소와 관련된 기업의 잠재적 위험의 크기와 대응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투자는 결국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그 가운데서도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의 증가 등 물리적 위험을 가져온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기후변화의 완화 또는 적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 11월 발표될 예정인 파리협정은 각국 정부의 규제 또는 지원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또한 대중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소비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수와 규모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가 소비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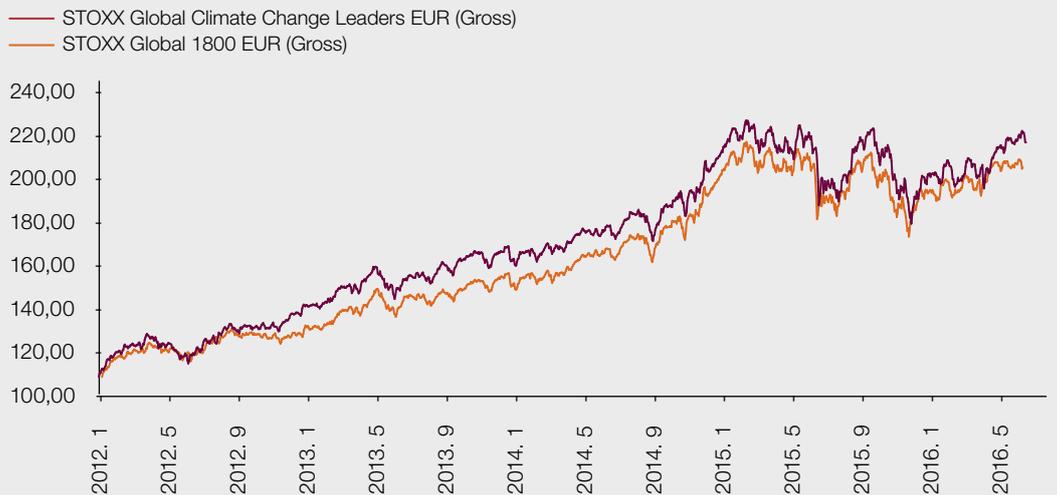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위험이자 기회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규제적 여건 그리고 소비행동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가치는 결정될 것이다.

## 글로벌 자본시장, 기후변화정보공개 제도화 본격화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미 기후변화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의 미래가치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 UN은 2009년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의 제공

STOXX Global Climate Change Leader vs. STOXX Global 1800 성과 비교



2011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 CDP, 저탄소 경제의 연결고리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가능증권거래소이니셔티브(SSE)를 도입하였고, 현재 전세계 80여개 거래소가 가입하였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 기업의 기후변화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파리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향후 분쟁광물 사례와 같이 의무공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CDP 서명기관 변화



를 통한 표준화된 기후변화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DJSI, GRI 등의 기업의 지속가능관련 정보를 다루는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보고부담을 줄일 수 있는 표준화된 기후변화 정보공개 제도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투자자, 정보공개요청 넘어 적극적 인게이지먼트 시작

기후변화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보공개 요청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계 2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연기금과 유럽 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철학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UNEP FI와 CDP가 함께 설립한 포트폴리오탄소제거연합(Decarbonization Coalition)에 가입하여 투자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153개의 미국기업과 투자기관은 백악관에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현재 183개의 투자기관이 세계은행, UNEP 등이 조직한 We Mean Business에 서명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서약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4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및 노동, 인권 등의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 해소 및 감독 등을 위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보공개TF를 설립하여, 의무적인 기후변화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CDP, 기업-투자자 기후변화정보 소통을 위한 가교

CDP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기후변화정보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2002년, 35개 금융기관(운용자산 4.5조 (US)달러)의 요청으로 시작한 CDP의 기후변화정보공개프로젝트는 2016년 현재 전세계 827개 금융기관(운용자산 100조(US)달러)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하였다. 전세계에서 운용되는 금융자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이 CDP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투자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보공개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CDP는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DSB)를 설립하여, 재무보고서

## CDP 데이터 활용 지수

- ▶ Korea Exchange – KRX SRI Index
- ▶ Markit Carbon Disclosure Leadership index
- ▶ FTSE CDP Carbon Strategy Index
- ▶ BNEF Global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dex
- ▶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 ▶ FTSE4Good Index
- ▶ Ned Bank Green Index
- ▶ Bombay Stock Exchange Carbon Index
- ▶ Korea Exchange – KRX SRI Index
- ▶ Istanbul Stock Exchange Sustainability Index
- ▶ S&P/IFC Carbon Efficient Index
- ▶ STOXX Global Climate Change Leaders

## CDP 데이터 제공



### 블룸버그



### 2000

CDP 설립

### 2002

첫 번째 정보공개요청서 발송(서명기관: 35개, 운용자산 4.5조 (US)달러)

### 2007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DSB)발족, 다보스포럼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 도입

### 2008

CDP한국위원회 발족

### 2009

CDP Water 프로그램 도입

### 2010

CDP 데이터 블룸버그 터미널 통해 제공

### 2011

CDP Carbon Action 도입

### 2013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 지수로 선정  
CDP Forest 프로그램 도입

### 2015

UNFCCC: CDP 데이터 활용 해 기업 및 도시 목표 공개

### 2016

미국연방조달청, 해군 CDP Supply Chain 가입

# 한국,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제도적 준비 시작



펜타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기가 우리를 공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이유입니다.

Ray Mabus  
US Navy, Secretary

## 금융기관, 다양한 방법으로 CDP 데이터 활용

자본시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CDP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sup>index</sup>는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을 선택에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보 중 하나이다. CDP 데이터는 한 국거래소의 SRI 지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수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기업의 재무정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글파이낸스, 블룸버그 터미널, 독일증권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상장기업의 CDP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CDP 데이터를 기업 인게이지먼트에 적극활용하고 있다. 2015년 304개의 투자자들이 CDP의 Carbo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1,300개의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했다. 또한 많은 수의 CDP 서명기관이 개별적으로 CEO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투자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공급망 기후변화 위험 관리

지난 16년간 구축된 CDP의 네트워크 기반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공급망 기후변화 위험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 89개 기업이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4,000여개의 협력업체가 기후변화 정보공개에 참여하였다. CDP Supply Chain를 공급망 기후변화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인텔, 포드 등의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연방 조달청, 미국 해군 등과 같은 정부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WWF, 그린피스 등의 NGOs 등도 CDP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도입 본격화

한편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사회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관련 정보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공개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을 발족으로 보다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보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포럼 소속의 새누리당 홍일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SG 관련 정보의

### 2011.5

#### 환경부, enVinance system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도입

- 정부부처가 보유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
- 금융기관은 투자, 여신, 보험 등의 의사결정에 기업의 환경경영성과 반영

### 2012.1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사업보고서 의무 공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중 상장기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녹색경영정보공시 조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

### 2013. 11

####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발족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입법을 목적으로 설립
-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보 공개 확대 및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연구
- 대표의원: 홍일표의원 (새누리당)
- 주요 발의 법안: 사회적책임 공공조달법 (통과)
- 상장기업 ESG 정보공시법

### 2015.11

#### 국민연금 사회적책임투자 벤치마크 지수 운용

- 국민연금은 6.85조원(2015년말 기준)의 사회적책임 투자형 자산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평가를 위한 자체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 적용
- 의결권 행사 시에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 홈페이지를 통해 책임투자 고려한 보유기업 현황 공개

### 2015. 12

#### 사회책임 공공조달법 통과

- 대표발의: 홍일표의원(새누리당)
- 조달법 제3조 2항에 따라 조달 절차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 가능
- 종합심사낙찰제 - 공공 공사 낙찰업체 선정 시, 사회적 책임 점수 반영
-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책임 공공조달 도입

### 2016. 8

#### 상장기업 ESG 정보공시법 발의

- 대표발의: 홍일표의원(새누리당) 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
- 기업의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을 고려한 사회적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등의 ESG관련 요소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19대 국회 발의안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및 발의

기후변화 위협의 관리는, 특정한 SRI 펀드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40,000조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연금자산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우리가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Odd Arild, Storebrand CEO

사업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법안 심사가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의원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기업의 공시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의 UN지속가능거래소이니셔티브(SSE)도 비재무적 정보공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미 새로운 사회책임지수의 도입과 ESG 등급의 공시시스템 등록을 발표하였다. IR 담당자 교육, 최초 상장요건에 반영 등 SSE가입 해외거래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의 국내 도입이 예상된다.

**투자시 기후변화 정보 활용 증가될 것으로 기대**

국민연금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민연금은 전체 541조원의 기금 가운데 98조원과 284조원을 각각 국내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2016년 9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121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연금은 ESG 반영 기준, 투자종목 현황 등

을 공시 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을 통해 의결권 행사 시에,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옥시의 가슴기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투자이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ESG 정보 고려 정도는 더욱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의 ESG 정보 활용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사회책임투자활성화를 위한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이 발족하였고,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65개의 공적 연기금의 기금 운용에 ESG 정보 고려를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내년 초에 도입이 예상되는 스투어드십코드도 기관투자자들의 기후변화를 포함한 비재무적 정보의 활용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다른 ESG 이슈에 비해 정량적인 정보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SG 정보의 투자이사결정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될 것이다.

**2014.12 국민연금 책임투자법 통과**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관련사항 공시 의무 규정

**국민연금**

- 운용자산: 541조원(16년 7월기준, 세계 3위)
- 투자자산군: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2015. 1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여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한국거래소에 배출권거래시장 주관
-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수익이 재무보고서에 직접 반영

**2015. 5 한국거래소 UN지속가능거래소(SSE) 이니셔티브 가입**

- 2015.12 새로운 사회책임지수 시리즈 발표 (KRS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 2016.10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및 한국예탁결제원 Seibro시스템에 상장사 ESG 등급 공시

**UN지속가능거래소(SSE) 이니셔티브**

- 거래소를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를 장려하기 위해 UN 주도로 발족
- 전세계 80여개 거래소 가입

**2016. 9 국회SRI정책연구포럼발족**

- SRI(사회책임투자) 정책 연구,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을 목적으로 설립
-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민간 ESG분과위원으로 구성
- 대표의원: 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표의원(새누리당)

**2016.9 공적연기금 책임투자법 발의**

- 공적연기금 수: 65개
- 공적연기금 자산규모: 1,579조
-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연기금이 국민연금과 같이 자산운용과정에서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동래의원(더민주) 발의
- 국회SRI정책연구포럼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법안 발의 예정

**2017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예정**

- 공적연기금 및 민간기관투자자 차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기업 인계이지먼트가 강화될 전망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 Korea Overview

## 저탄소 경제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진단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기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세계 각국정부는 파리협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협정의 발효를 앞둔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파리협정 이후 새롭게 펼쳐질 저탄소 경제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은 곧 그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낼 것이다. 본 챕터는 다가오는 저탄소 경제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가능하기 위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과 기후변화 관련 성과를 비교하였다.

### 한국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비율 및 감축목표 ↑

온실가스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시작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CDP 2016에 응답한 한국기업의 Scope 1 & 2 배출량 검증 비율은 77%와 74%였다. 이는 유럽 다음으로 높은 비율에 해당하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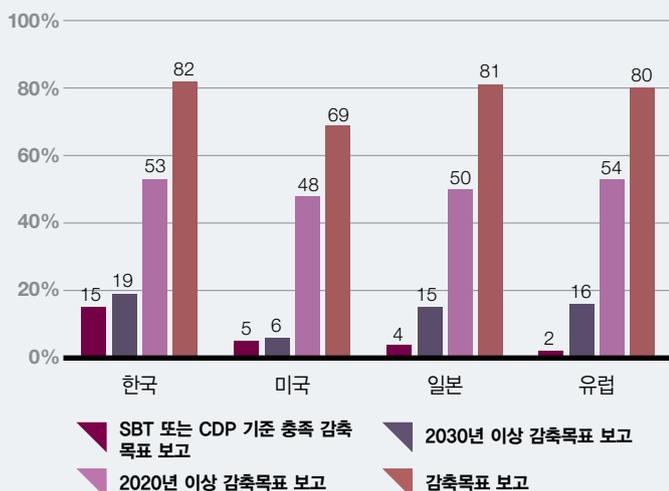
감축을 위한 다음 단계는 명확한 감축목표의 수립이다. 한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비율도 높았다. 하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고한 기업은 82%로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20년 이상의 감축목표 설정, 2030년 이상 감축목표 설정 기업비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sup>Science</sup>

Based Target Initiative 또는 CDP가 제시한 조건- 과학계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을 만족한 기업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기업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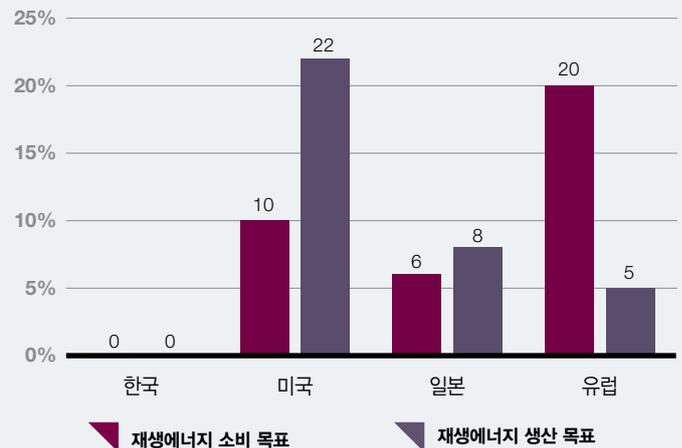
### 재생에너지 관심, 해외기업에 비해 월등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목표의 이행이다.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였다고 보고한 한국기업은 71%로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또는 소비 관련 목표를 수립한 한국기업은 전무했다. CDP 응답 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기업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응답결과와 실제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보정한다 하여도 가장 낮은 수준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의 제도적 특징을 -단일계통으로 이루어진 전력망과 RPS 대상인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의 재생에너지증서(REC)의 구매가 불가능한 점 -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생산관련 목표조차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 생산설비의 효율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근본적인 에너지원의 대체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감축목표 설정 기업 비율 (%)



재생에너지 소비/생산 목표 설정 기업 비율 (%)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이자 핵심이지만, 저탄소 경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저탄소 경제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핵심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사업전략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기업의 비율은 97%로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내부적으로 탄소가격을 설정하여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기업은 29%로 약간 낮았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많이 높았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유럽과 한국에서 도입된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비율도 현저히 ↓**

시장에서 기업의 성공은 기업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힘쓰는 이유이다. 파리협정을 전후로 기업과 투자자가 중심이 된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다. 그리고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니셔티브가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과학기반감축목표 수립, 주류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의 제공 등을 서약하였다.

CDP, Ceres, WBCSD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We Mean Business(WBM)이니셔티브에는 현재 43개 국가의 467개 기업이 가입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WBM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한국기업은 대구은행과 코웨이 단 2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225개 기업이 가입한 유럽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미국

과 일본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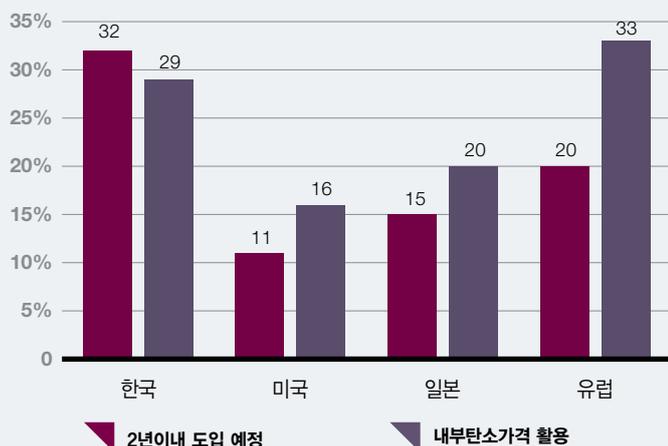
이니셔티브의 가입이 반드시 해당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발표한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업이 적지 않음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COP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확고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국기업의 미온적인 참여가 아쉬운 점이다.

**기후변화 대응 규제를 넘어, 경쟁력 원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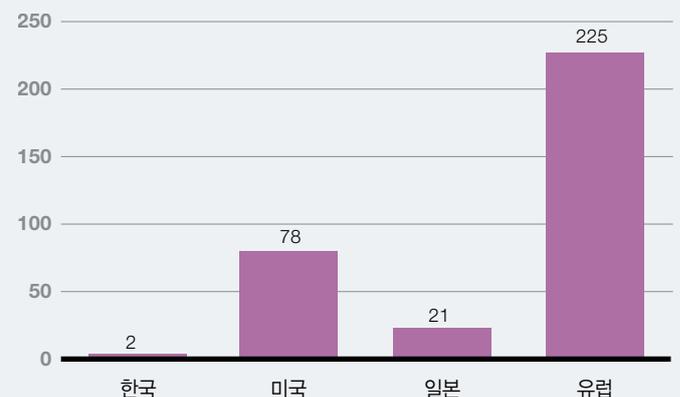
분석 결과, 한국기업은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목표수립과 내부탄소가격<sup>1</sup>의 도입 등에서는 높은 수준을,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과 같은 감축 이행,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국내에 규제가 도입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인 반면, 자발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오늘날 기업의 활동은 이미 국가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고 세계 각지에서 판매된다. 반면 한국기업의 기후변화대응은 국내 규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는 파리협정의 발효를 통해 저탄소 경제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된 국내 규제의 바탕 위에,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국기업은 새로운 저탄소 경제 체제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탄소가격<sup>1</sup> 도입/도입예정 기업 비율 (%)**



**기후변화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기업 수**



# Korea Overview

## 그룹별 비교: 한국적 지배구조, 저탄소 경쟁력 가능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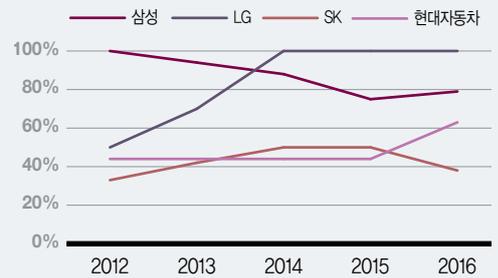
한국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특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이슈를 대응하기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챕터는 한국의 주요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 LG,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모범 보여

LG그룹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CDP 정보공개 대상 12개 그룹사 가운데, 정보공개에 참여한 기업은 6개사로 응답률은 50%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룹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주)LG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그룹사가 CDP 정보공개에 참여하고 있다. 응답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0%의 그룹사가 Leadership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5개 기업(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은 가장 높은 수준인 Leadership A를 획득하여, 비교대상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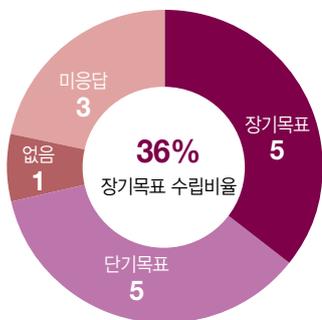
### 주요 그룹 5년 응답률 변화



그룹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삼성	16/16	15/16	14/16	12/16	11/14
LG	6/12	7/10	10/10	10/10	10/10
SK	4/12	5/12	5/10	5/10	3/8
현대자동차	4/9	4/9	4/9	4/9	5/8

(응답기업 수 / 대상기업수)

### 삼성



#### 장기목표 수립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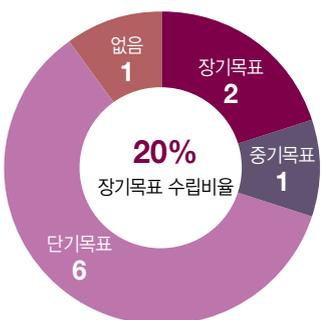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SDI

### 삼성, 금융계열사의 인식전환 필요

반면, 삼성그룹의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강조하여 모든 그룹사가 CDP에 참여한 2012년 이후,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금융 관련 계열사의 이탈이 눈에 띈다.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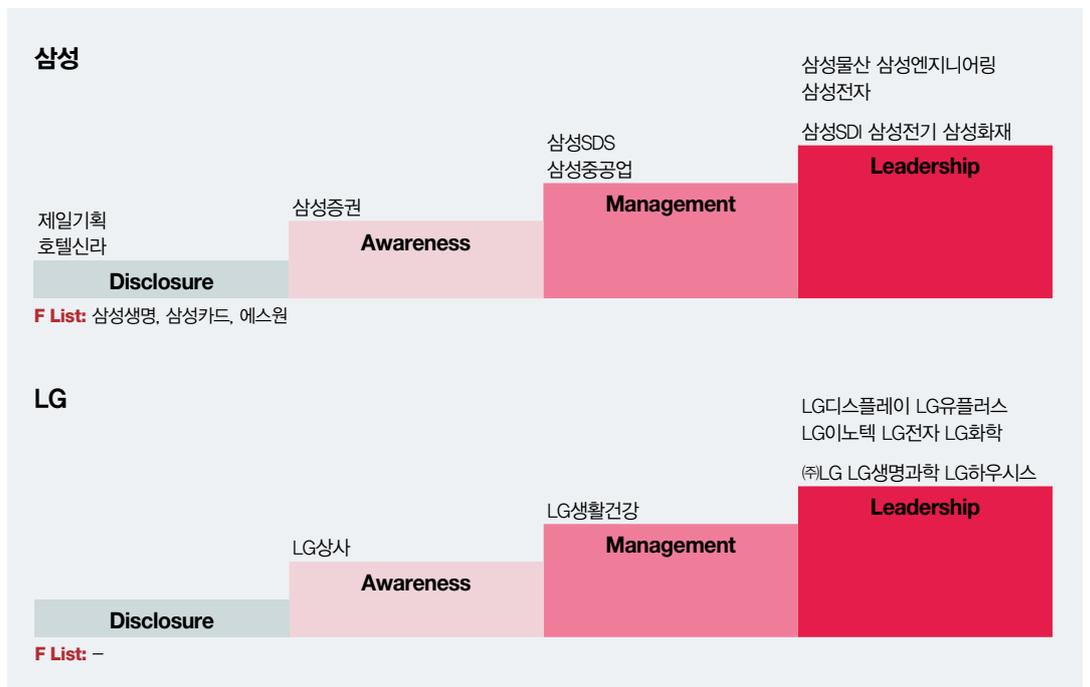
상 기업 및 자산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영향의 반영은 이제 핵심 전략이 되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이유기도 하다. 기후변화를 아직 제조업만의 이슈로 바

### LG



#### 장기목표 수립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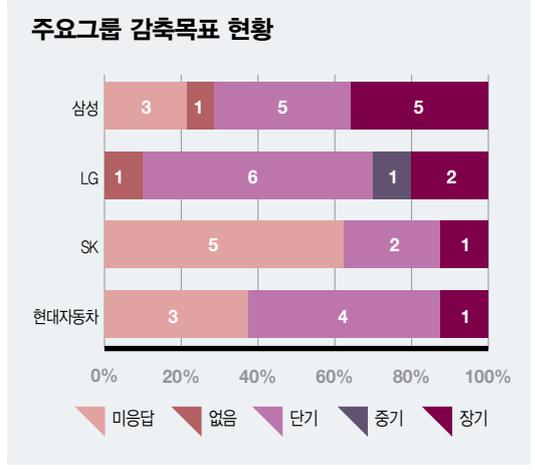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라보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남는 지점이다. 하지만, 2036년 이상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그룹사의 수는 5개로 가장 많았다.

**SK, 기후변화에도 “따로 또 같이” 경영 리더십 보여야**

SK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우수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LG그룹과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SK하이닉스가 5년 연속 탄소경영아너스클럽에 편입되어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된 이후에도, 4년 연속으로 우수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SK그룹의 주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기업 중 CDP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 그리고 대응전략을 공개하는 기업은 전무하였다. 석유·화학, 반도체, 통신으로 구성된 SK그룹은 비교 대상 그룹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가 가장 크게 노출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모두 같이 대응해야 할 인류적 과제이다. ‘따로 또 같이’를 그룹 경영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SK그룹의 같이 가는 리더십이 아쉬운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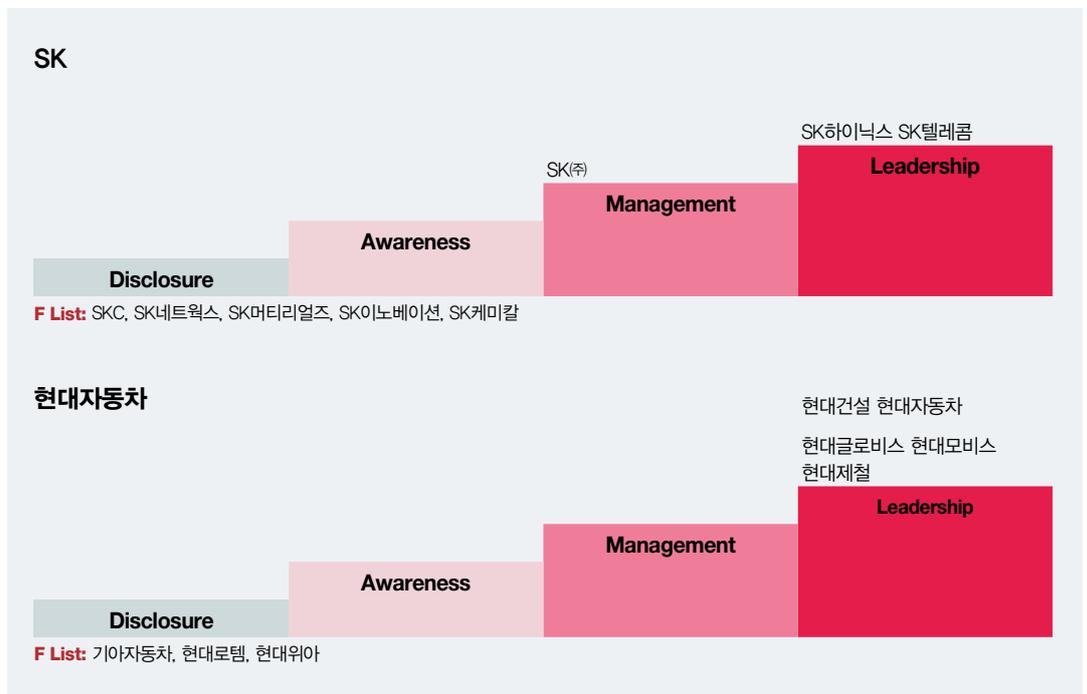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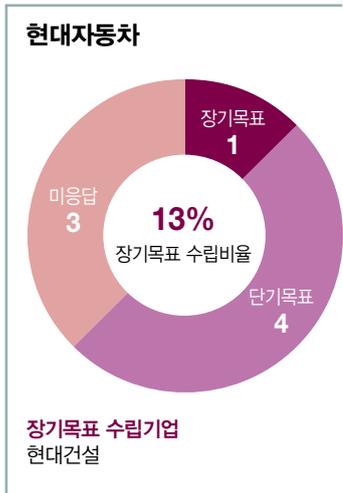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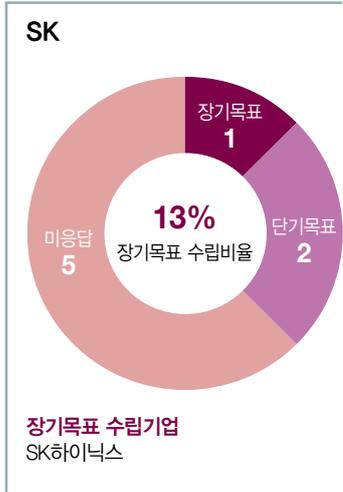
별 자동차 기업은 이미 자사의 기후변화경영을 넘어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협력업체는 물론이거니와 기아자동차와 현대위아와 같은 그룹내의 자동차관련 계열사의 기후변화 대응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성과 ↑ 협력사 관리 수준 ↓**

올해 현대글로벌비스가 신규로 CDP에 참여함으로 인해, 지난 4년간 5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응답률은 소폭 상승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CDP에 참여한 모든 그룹사가 Leadership 수준으로 높은 대응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 향상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기후변화경영과 비교할 때,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아쉬움이 남는다. 토요타, BMW등의 글로벌

**한화그룹, 태양광 리더십 진정성 보여야**

한화그룹은 큐셀을 인수하는 등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화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기후변화정보를 5년 연속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큐셀을 인수한 주체인 한화케미칼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일반화된 소통채널인 CDP 대응을 거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 한화그룹의 태양광 리더십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대응방안은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다. 파리협정의 비준은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 브라질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들은 이미 비준을 마쳤으며, 오는 11월 협정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분명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협정은 전세계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파리협정은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기업은 국가보다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은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다. 파리협정 이전부터 이미 많은 수의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파리협정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반면 아직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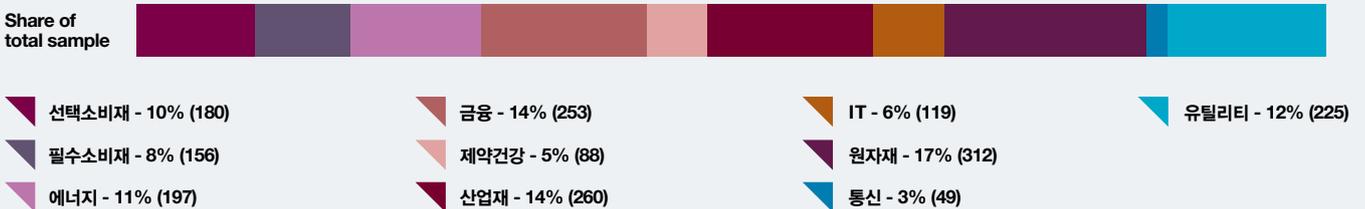
CDP는 향후 5년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추적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 추적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과학에 기반한 목표의 수립 (Science based targets), 내부탄소가격 활용 및 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분석하였다.

정보의 공개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점이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을 기후변화대응 성과 추적을 위한 한가지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6년, 성과추적을 위한 2,000개 정도의 대상 샘플 중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000여개의 기업만이 마감기한 내에 응답하였다. 향후 5년 내에 나머지 700여개 기업도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CDP는 향후 5년간 1,089개의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성과를 추적하여 글로벌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퍼센트를 차지하였고, 이들 기업 가운데 85퍼센트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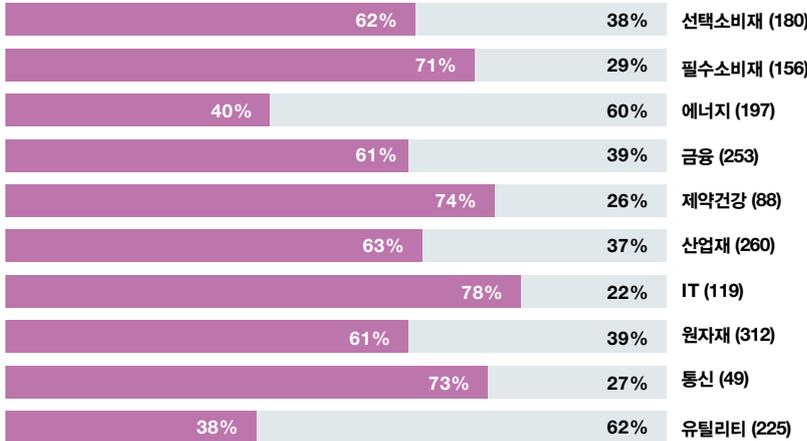
### 섹터별 추적대상 기업 비율 (괄호 안 수치는 섹터 별 전체 기업 수)



### 지역별 추적대상 기업 비율 (괄호 안 수치는 전체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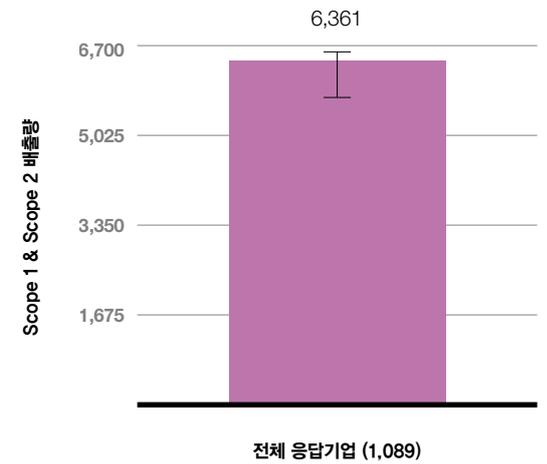
**섹터 별 응답 및 미응답 기업 비율** (괄호 안 수치는 전체 기업 수)



응답기업 비율

미응답기업 비율

**전체 대상기업 Scope 1 & Scope 2 배출량 합계** (괄호 안 수치는 전체 응답 기업 수)



**가시화된 미래**

많은 기업과 정부들이 저탄소 사회 전환에 따른 기회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저탄소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제약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저탄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대상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은 62%에 불과하였으며, 아직 많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이 기업들에게 배출량 데이터 공개를 위한 중요한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증가, 하지만 장기목표 미비**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중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절대량 및/또는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반드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불충분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였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수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55퍼센트의 응답기업은 2020년 이상의 목표를 수립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30년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보고한 기업은 14%에 불과하였다. 평균기온 상승의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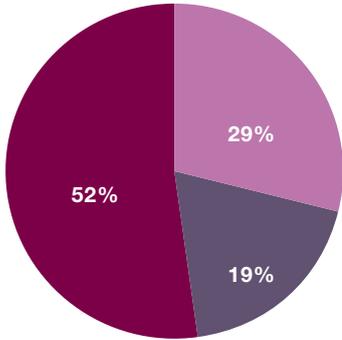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및 섹터별 수준의 성과 분석 모두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에너지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비율이, 특히 2020년 이상 감축목표 수립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는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화석연료 관련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반드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파리협정에 앞선, 2015년도 기업활동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 발효 이후의 기업 데이터를 반영하는 내년도 보고서에서는 장기목표를 설정한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과학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CDP는 본 보고서와 이어지는 보고서를 통해 최신 기후과학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수를 추적·분석할 계획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발표한 기업의 수는 94개였다. 이 가운데 85개 기업이 해당 이니셔티브의 확인 프로세스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15개 기업의 목표가 과학기반목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 내부탄소가격 설정 기업 비율



- 내부탄소가격 설정 기업
- 2년 이내 수립 도입 예정
- 2년 이내 도입 계획 없음

### 기업이 설정한 감축목표 총량, 과학계가 제시한 2°C 목표의 1/4에 불과; 파리협정 발효로 격차 감소 기대

본 보고서는 기업이 보고한 감축목표의 수뿐만 아니라, 보고된 목표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설정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하였다.

기업들이 현재 보고한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까지 1Gt CO<sub>2</sub>e (1,000 MtCO<sub>2</sub>e)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2°C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4GtCO<sub>2</sub>e (4,145 MtCO<sub>2</sub>e) 감축의 1/4수준에 그쳤으며, 따라서 3/4 해당하는 3GtCO<sub>2</sub>e (3,145 MtCO<sub>2</sub>e)의 감축량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 포함된 기업이 보고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에서 이르는 양이다.

기업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현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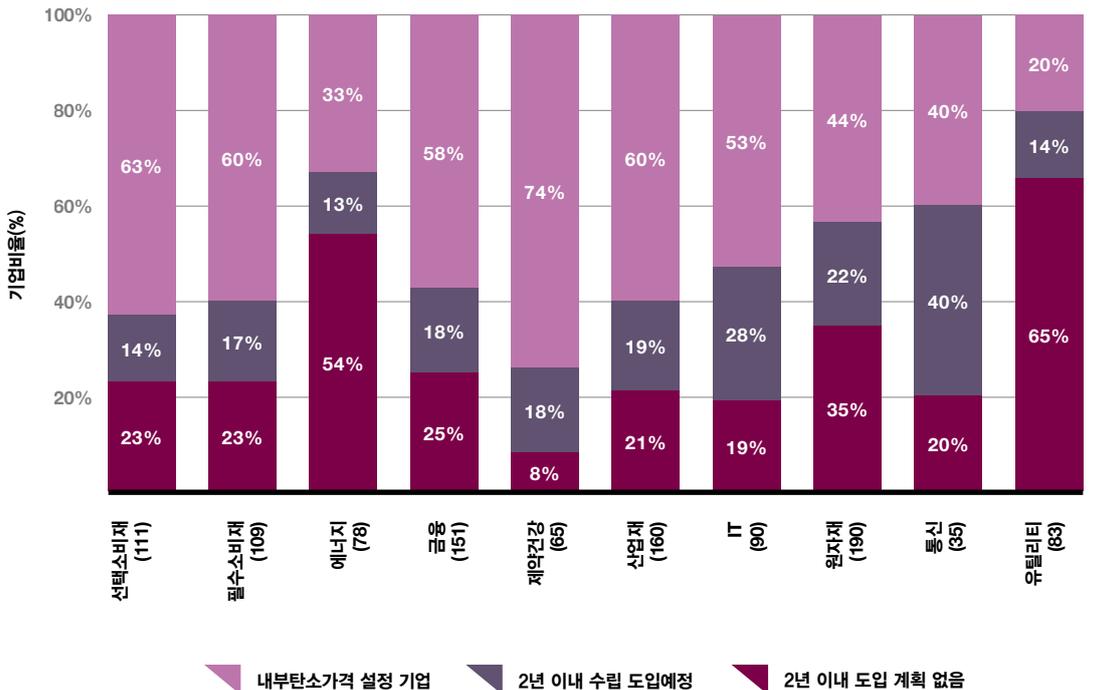
### 저탄소 경제로 전환: 내부탄소가격 설정 기업 증가,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지체

비록 감축활동의 성공 및 범위는 상이하였으나, 현재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업(97%)이 감축 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내부탄소가격을 설정,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시나리오 위험 평가과정에서 투자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잠재수익률 산정 및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 및 기회에 파악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배출량 또는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저탄소 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목표 및 전략수립에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11%의 기업만이 재생에너지 소비 목표를 수립하였고,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수는 더욱 적었다(5%).

### 섹터별 내부탄소가격 설정 기업 비율 (괄호 안 수치는 섹터 별 전체 기업 수)



전체 대상 기업의 90%가 전력기업인 유틸리티 섹터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전체의 1/3에 미치지 못하였다.

**매출과 배출량 디커플링 기업, 온실가스 감축과 매출 증가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

몇몇 소수의 기업들은 환경영향 감소와 경제성장의 병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의 기업별 매출액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62개 기업이 지속적인 유의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매출액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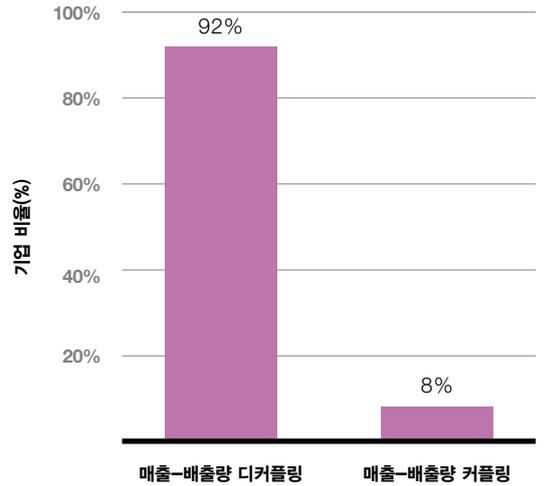
J. Sainsbury와 Walmart de Mexico 등의 필수소비재 기업, Eversource Energy와 Idacorp 등의 유틸리티 기업, 그리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원자재 섹터에 속하는 스위스의 Givaudan과 일본의 Lixil 등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매출액 상승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과 매출액의 디커플링 decoupling’을 최근 5년간 10% 이상의 매출액 상승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정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도적 기업들의 사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가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한 사업의 성공의 기회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경제적 성장간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

**최근 5년 기간 동안 디커플링 성장<sup>decoupled growth</sup>을 보인 기업 비율 (5년간 모두 CDP에 응답한 기업만 반영)**



지만 ‘디커플링 성장<sup>Decoupled growth</sup>’을 달성한 62개 기업의 5년간 평균 매출액 상승률과 온실가스 감축률이 각각 29%와 26%라는 것은 분명히 눈 여겨 봐야 하는 결과이다.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6% 감소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6% 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직접 생산,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한 생산 효율성 증대,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 사용 또는 저탄소 제품 판매 등은 모두 기업에게 있어 비용보다는 수익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전략이다.

**최근 5년 기간 동안 디커플링<sup>decoupling</sup>을 보인 기업 및 나머지 기업의 매출액(왼쪽)과 배출량(오른쪽)변화**

기업 그룹(기업 수)	전체 매출: (조달러(US))		온실가스 배출총량(GtCO <sub>2</sub> e)	
	5년기간 중 첫 번째 해	5년기간 중 마지막 해	5년기간 중 첫 번째 해	5년기간 중 마지막 해
매출-배출량 디커플링 (730)	17.7	16.6 (-6%)	4.82	5.08 (+6%)
매출-배출량 커플링 (62)	1.31	1.70 (+29%)	0.468	0.34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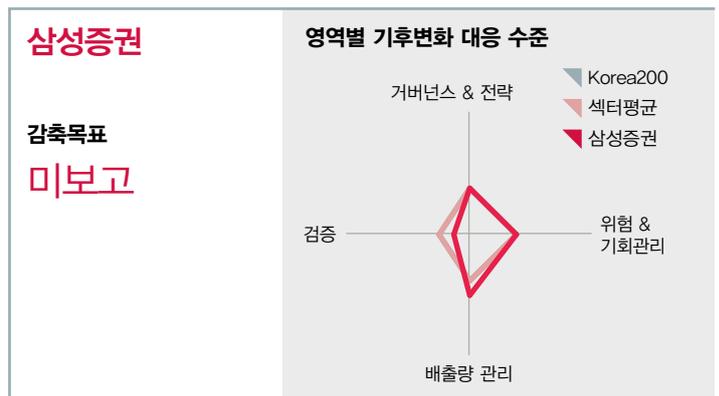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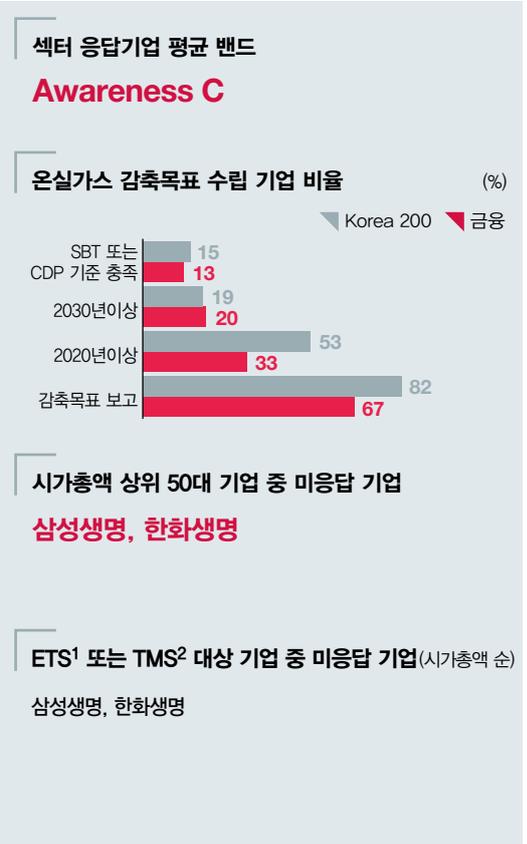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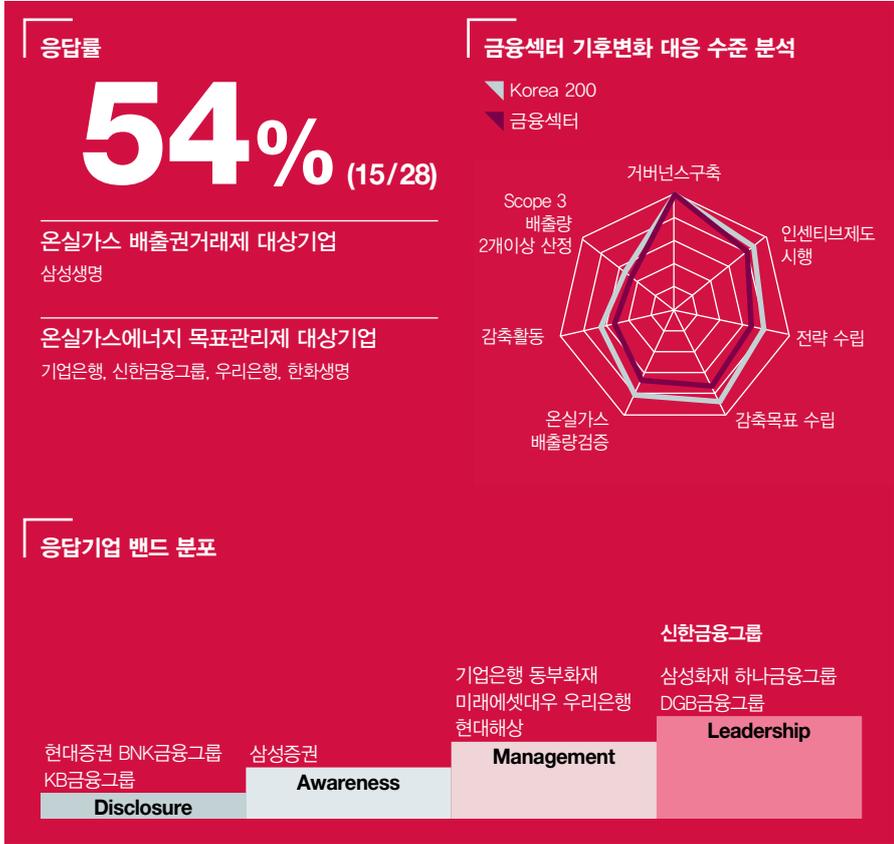
1. 디커플링: 기업의 매출과 배출량의 관계에 있어 부의 상관관계를 의미.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기업의 매출이 증가함.



수상 태양광 사업은 육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수면에 설치된 발전 시설이 빛을 차단하고 그늘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녹조 발생 및 확산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2015년 경북 상주시 오태·지평저수지에 구축된 상주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전체 설치 면적이 축구장 10배 크기인 64,000m<sup>2</sup>로 매년 8,600MWh 전기를 생산해 2,4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본 사업에 약 1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신재생에너지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및 후순위대출로 5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 삼성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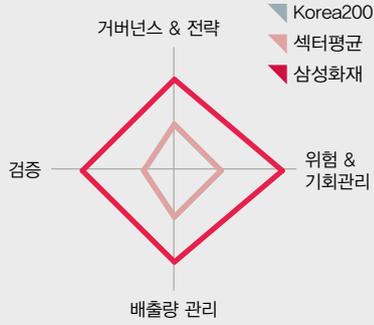
감축목표

**2036** 목표연도

**55%** 감축률

2011년 대비 2036년까지  
총량 55%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신한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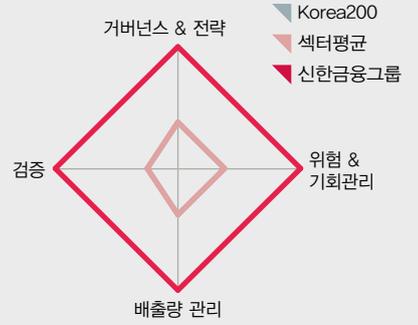
감축목표

**2050** 목표연도

**60%** 감축률

2012년 대비 2050년까지  
총량 60%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우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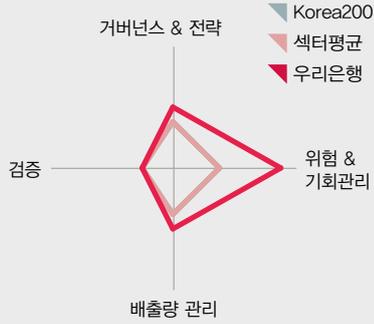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3.6%** 감축률

2012년 대비 2015년까지  
총량 3.6%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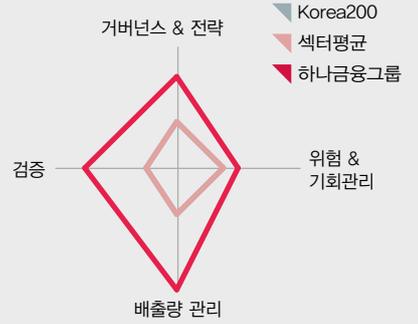
감축목표

**2035** 목표연도

**25%** 감축률

2013년 대비 2035년까지  
Scope 2 총량 25%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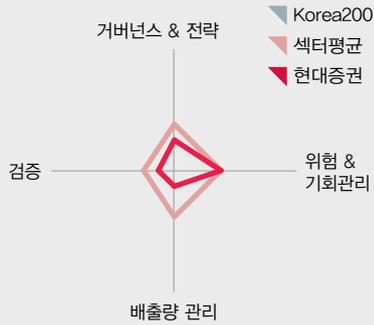


### 현대증권

감축목표

**미보고**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현대해상

감축목표

**2016** 목표연도

**20%** 감축률

2011년 대비 2016년까지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  
20%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DG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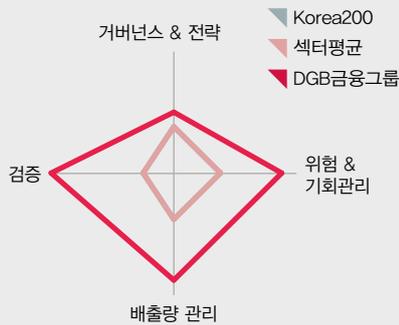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0.6%** 감축률

2014년 대비 2015년까지  
지점당 배출량 0.6%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KB금융그룹

감축목표

**2016** 목표연도

**1%** 감축률

2015년 대비 2016년까지  
총량 1%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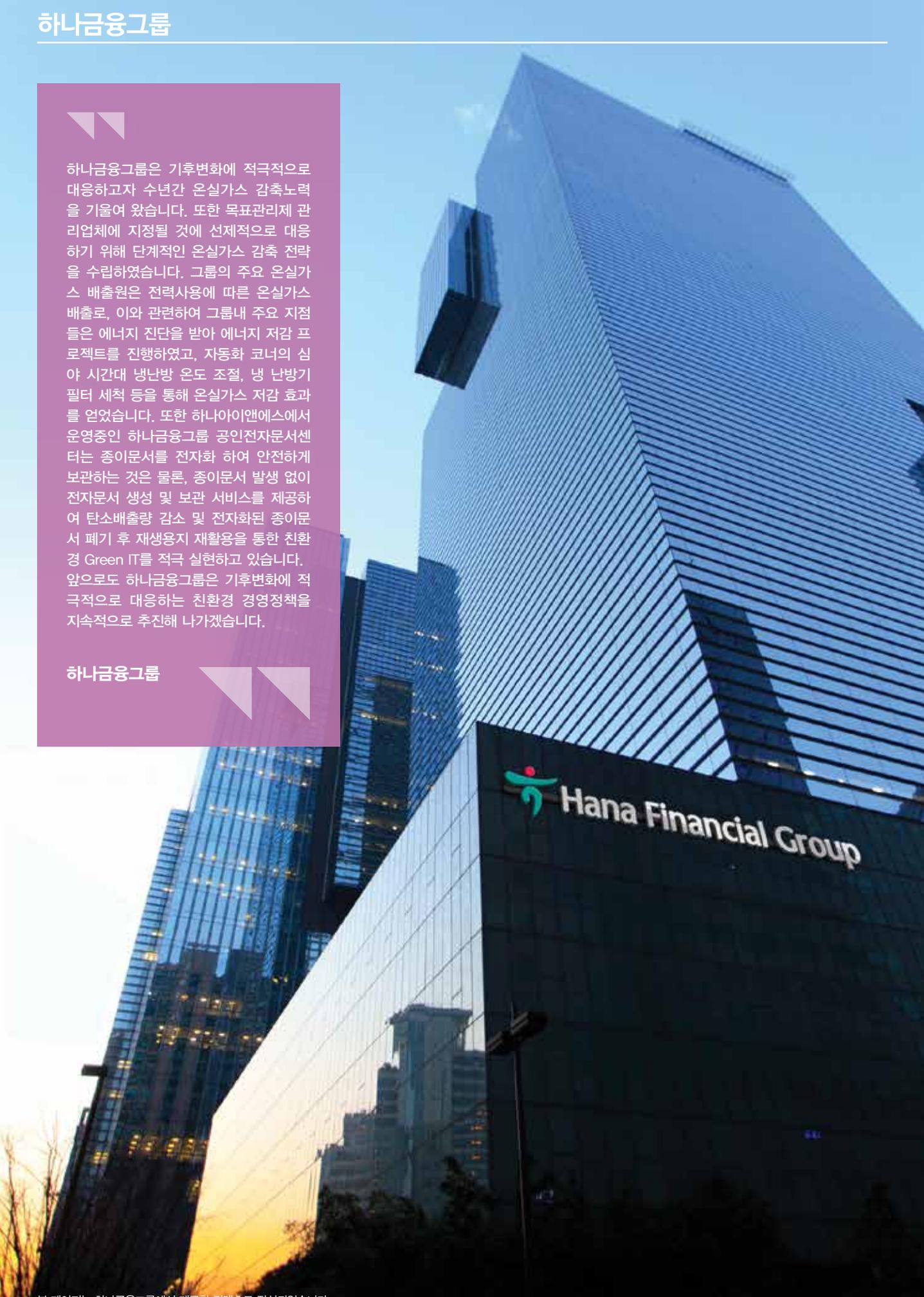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년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지정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룹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이와 관련하여 그룹내 주요 지점들은 에너지 진단을 받아 에너지 저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자동화 코너의 심야 시간대 냉난방 온도 조절, 냉 난방기 필터 세척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아이앤에스에서 운영중인 하나금융그룹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이문서를 전자화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종이문서 발생 없이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배출량 감소 및 전자화된 종이문서 폐기 후 재생용지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Green IT를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경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A photograph of a modern glass skyscraper at dusk. The building's facade is highly reflective, mirroring the sky and surrounding structures. In the foreground, a dark section of the building features the Hana Financial Group logo, which is a stylized green figure with arms raised, followed by the text "Hana Financial Group" in white. The sky is a deep blue with some light clouds, and the overall atmosphere is that of a city at twilight.

Hana Financial Group



글로벌 종합물류유통기업인 현대글로벌비스는 신기후체제 및 대내외 환경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녹색물류를 실천하고자 차량, 선박, 물류센터 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반에 대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을 위한 정부의 물류수송부문 로드맵 수립과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기존 물류시스템을 고도화하여 MRV(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과 선박의 관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최적경로 적용 및 eco-driving을 실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연안해송과 철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Modal Shift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친환경물류 상생협력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물류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Know-How를 전수하는 등 물류유통 분야 Leading Company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벌비스



## 응답률

# 46%

 (19/41)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벽산, 아시아나항공,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제주항공,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SK 네트워크, KCC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대우건설, 아이에스동서, 한화테크윈 (주)한진, 현대건설,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로템, CJ대한통운, GS건설, LS산전

## 산업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 Korea 200  
■ 산업재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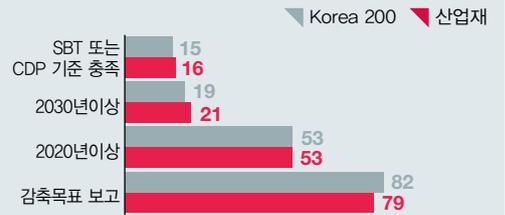
## 응답기업 밴드 분포



## 섹터 응답기업 평균 밴드

### Awareness C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업 비율 (%)



##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한국항공우주, CJ(주), 한전KPS, CJ대한통운

## ETS<sup>1</sup> 또는 TMS<sup>2</sup>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시가총액 순)

한국항공우주, CJ대한통운, SK네트웍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아이에스동서, 아시아나항공, (주)한진, 벽산, 제주항공

## 대우건설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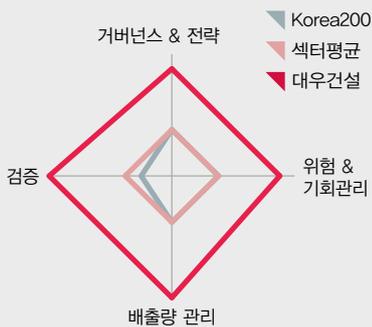
# 2037

 목표연도

# 2.1%

 감축률

2037년까지 전년대비 매년 총량 2.1% 감축



## 대우조선해양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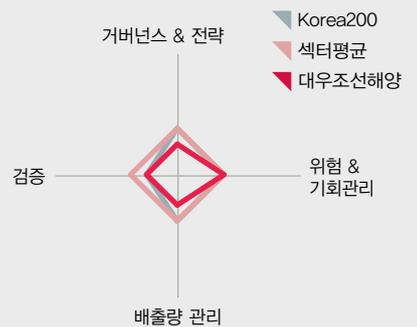
# 2016

 목표연도

# 5%

 감축률

2011년 대비 2016년까지 총량 5% 감축



## 두산중공업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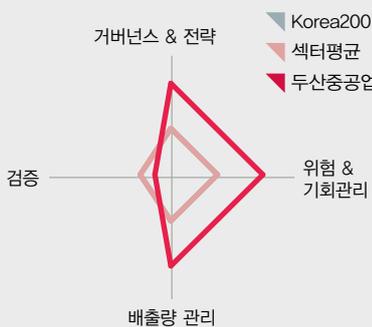
# 2020

 목표연도

# 7.6%

 감축률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총량 7.6% 감축



## 삼성물산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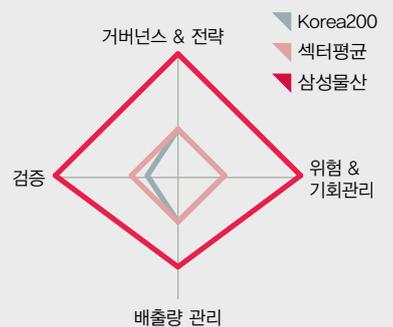
# 2040

 목표연도

# 55%

 감축률

2014년 대비 2040년까지 총량 55% 감축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 삼성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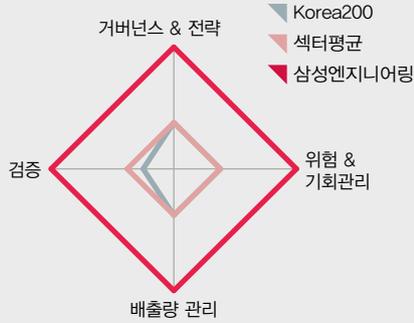
감축목표

**2036** 목표연도

**37%** 감축률

2014년 대비 2036년까지  
총량 37%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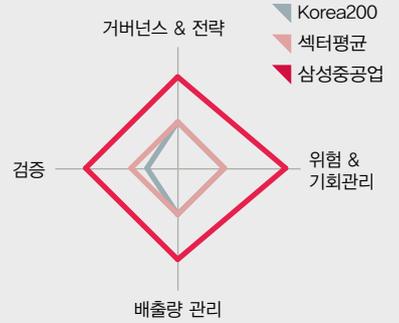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10%** 감축률

2009년 대비 2015년까지  
총량 10%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현대건설

감축목표

**2040** 목표연도

**52.5%** 감축률

2015년 대비 2040년까지  
총량 52.5%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현대글로벌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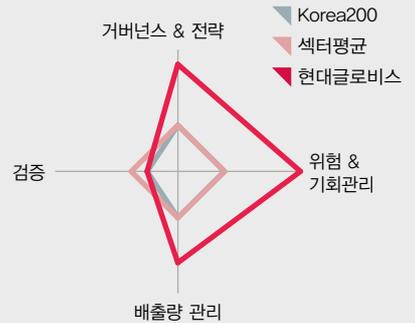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10%** 감축률

2013년 대비 2020년까지  
화물 무게x거리(ton\*mile) 당  
Scope1 배출량 10%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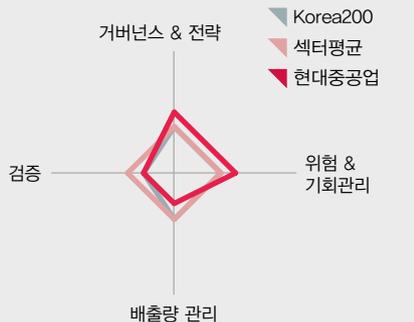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0%** 감축률

2015년 온실가스 배출총량  
2014년 수준으로 유지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GS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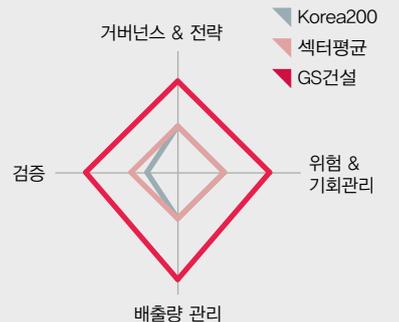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7.8%** 감축률

2011년 대비 2020년까지  
총량 7.8%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KCC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6.2%** 감축률

2015년 BAU 대비  
총량 6.2%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LS산전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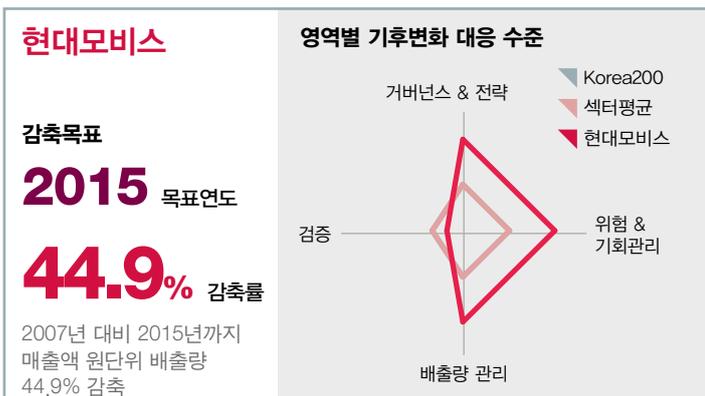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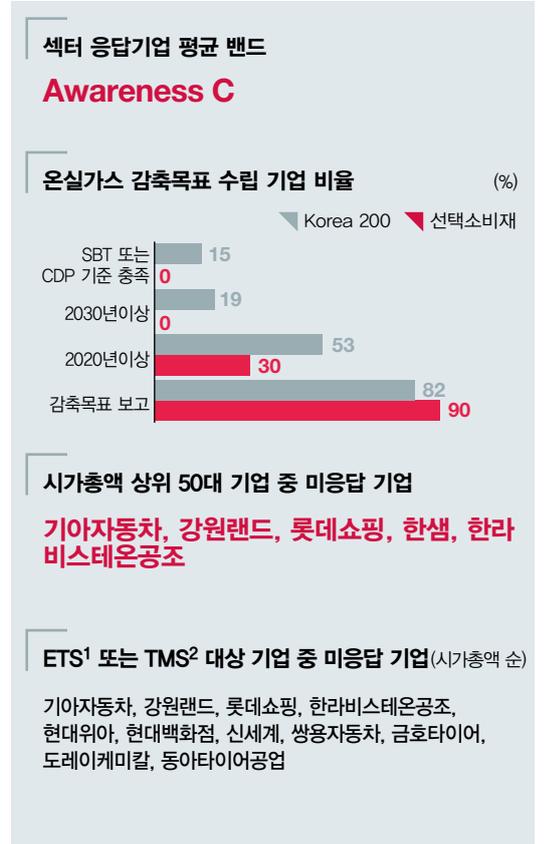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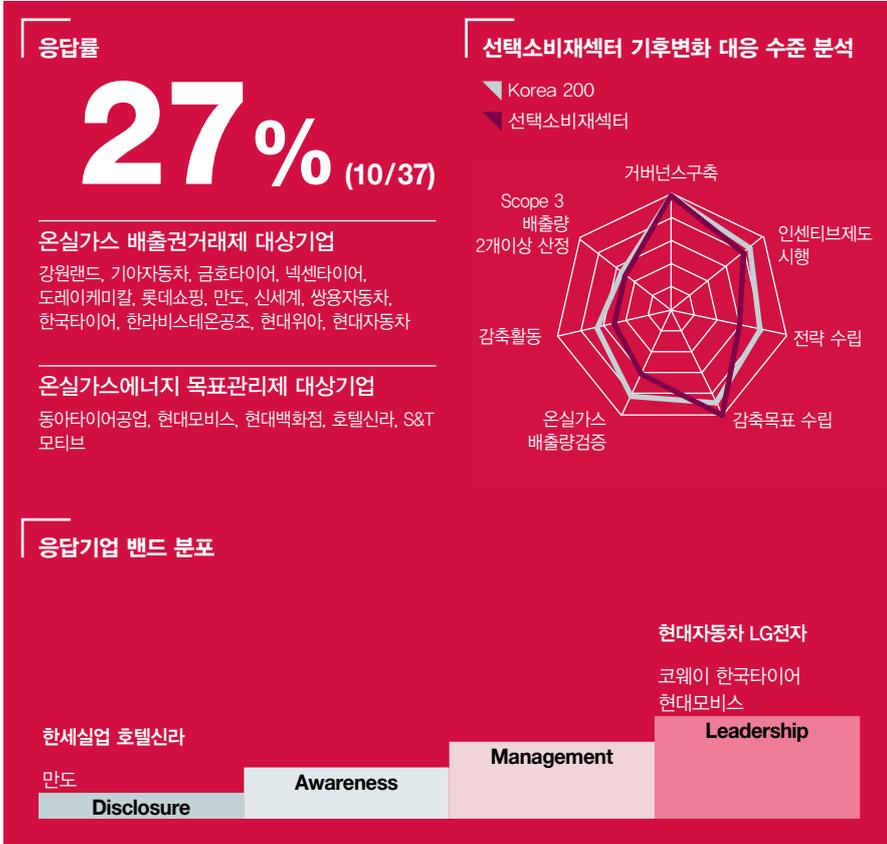
**2%** 감축률

2014년 대비 2015년까지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 2%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선택소비재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 호텔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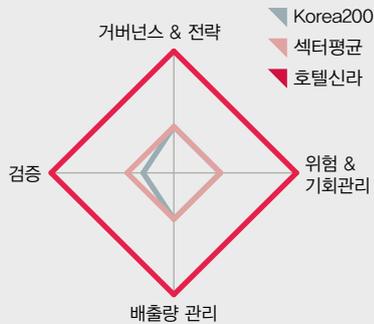
감축목표

**2015** 목표연도

**10%** 감축률

2012년 대비 2015년까지  
총량 10%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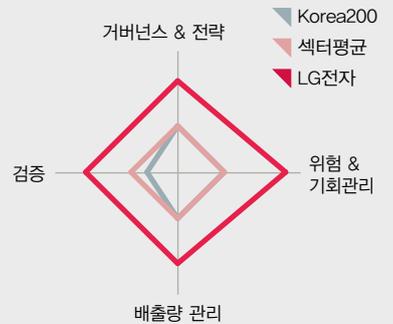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10.3%** 감축률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총량 10.3%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CDP 섹터 보고서 시리즈

CDP는 분기별로 투자자 맞춤형 섹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DP 섹터 보고서는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세분화 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되었다.

섹터보고서는 CDP 투자자 리서치팀이 각 섹터 별로 개발한 고유의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기업이 기존에 CDP를 통해 제공한 데이터와 섹터 별 특성에 맞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섹터 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한 슈퍼리그 테이블을 발표한다. 포스코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철강섹터 보고서에서 전세계 철강섹터 기업 중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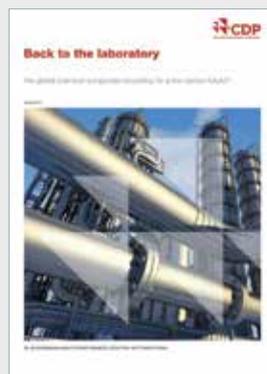
본 보고서 시리즈는 CDP 서명기관에게만 제공되며, 요약본은 일반에게도 공개가 된다. 섹터 보고서는 CDP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Carbon Action"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투자기관들이 본 보고서를 직접 또는 투자자그룹을 통한 기업의 인게이지먼트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CDP 투자자 보고서의 작성을 맡고 있는 CDP 리서치팀은 2015년 가장 뛰어난 기후변화 관련 리서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보고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섹터를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개 섹터의 7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현재는 정유 및 가스 섹터 보고서가 제작 중에 있다.

CDP 섹터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각 섹터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섹터 내에서의 누가 기후변화 대응에 앞서고 있으며, 누가 뒤처져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투자사결정에 반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섹터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cdp.net/en/reports/archive>

- ▶ Nerves of steel - 철강
- ▶ Visible cracks - 시멘트
- ▶ Emission impossible - 자동차
- ▶ Making the grade - 광업
- ▶ Back to the laboratory - 화학
- ▶ Flicking the switch - 전력





현대자동차는 경영철학인 '무한책임정신', '인류애의 구현', '가능성의 실현'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자동차 연비 향상 및 친환경차 개발,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전략인 '블루드라이브'를 전개하여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전략 '2020.22.2'를 통해 친환경 차량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 2016년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3개 시스템을 하나의 전용차 플랫폼으로 개발하였으며, 아이오닉(IONIQ)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부문에서는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ED조명, 고효율 기기 도입 등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태양광 발전, ESS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공장 구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 응답률

# 33% (1/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S-Oil, SK이노베이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에너지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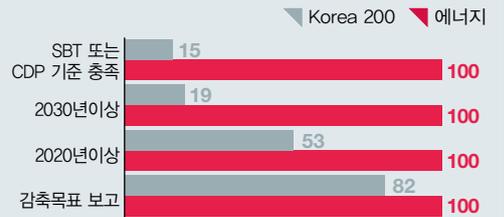
## 응답기업 밴드 분포



## 섹터 응답기업 평균 밴드

**Leadership A-**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업 비율 (%)



##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SK이노베이션**

## ETS<sup>1</sup> 또는 TMS<sup>2</sup>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시가총액 순)

SK이노베이션

## S-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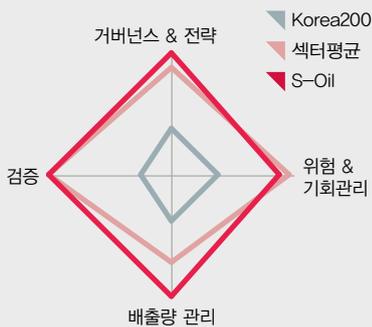
### 감축목표<sup>3</sup>

**2036** 목표연도

**42%** 감축률

2011년 대비 2036년까지 총량 42%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우리는 해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우리의 기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CDP의 기후변화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해군도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전투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Ray Mabus  
US Navy, Secretary



## 자발적 참여기업

기후변화는 기업의 규모나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CDP는 시가총액 상위의 상장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요청 샘플을 구성한다.

올해 CDP Korea 샘플은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CDP Korea

200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발적인 CDP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기후변화정보 소통 노력을 보였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보여 리더십 A-를 획득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CDP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한솔제지와 한국철도공사 역시 적극적인 탄소경영 노력으로 CDP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 자발적 참여 기업 리스트

- 대덕 전자
- 심텍
- 은성텍스타일
- 증산인터내셔널
- 파트론
- 한국동서발전
- 한국철도공사
- 한솔제지
- 한화그룹
- SK건설

# 원자재

## 응답률

# 41% (11/27)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고려아연, 고려제강,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동부하이텍,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세아베스틸, 쌍용양회, 영풍,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포스코, 포스코켄텍, 풍산, 한솔케미칼, 한일시멘트, (주)한화, 현대제철, 효성, 휴켄스, LG화학, OCI(주), SKC, SK머티리얼즈, SK케미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응답기업 밴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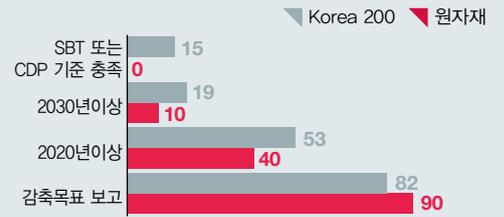
## 원자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 섹터 응답기업 평균 밴드

**Awareness C**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업 비율 (%)



##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고려아연**

## ETS<sup>1</sup> 또는 TMS<sup>2</sup>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시가총액 순)

고려아연, 한화케미칼, 영풍, OCI(주), SK케미칼, SKC, 태광산업, 쌍용양회, 대한유화, SK머티리얼즈, 세아베스틸, 한일시멘트, 포스코켄텍, 휴켄스, 동부하이텍, 한솔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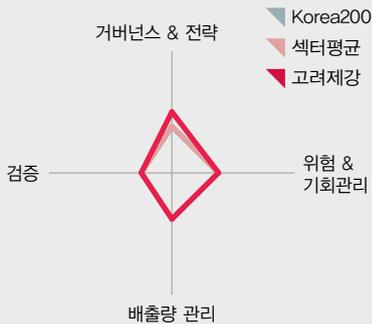
## 고려제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감축목표<sup>3</sup>  
**2017** 목표연도

**0%** 감축률

2017년까지 2013년 배출총량 수준 유지



## 롯데정밀화학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감축목표  
**2016** 목표연도

**5%** 감축률

2015년 대비 2016년까지 총량 5%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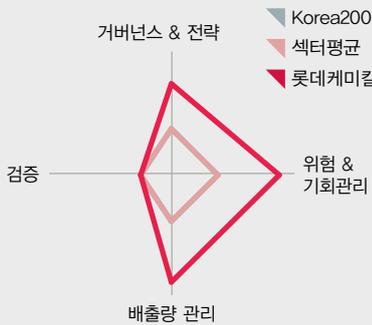
## 롯데케미칼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감축목표  
**2018** 목표연도

**30%** 감축률

2009년 대비 2018년까지 제품무게(ton) 당 배출량 30%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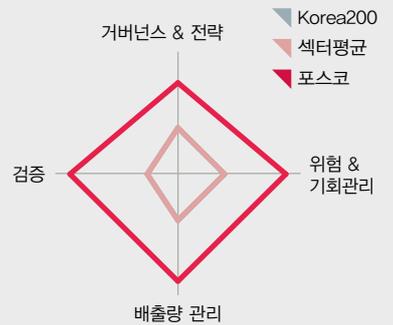
## 포스코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9%** 감축률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조강톤(ton) 당 배출량 9% 감축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 현대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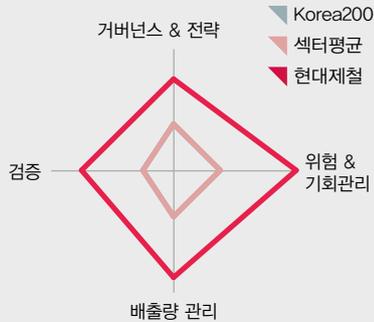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7%** 감축률

2013년 대비 2020년까지  
조강톤(ton) 당 배출량  
7%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LG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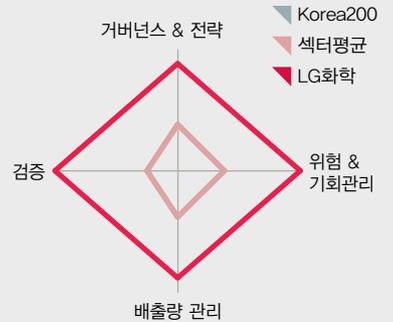
감축목표

**2030** 목표연도

**0%** 감축률

2030년까지 배출총량  
2015년 수준으로 유지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WE MEAN BUSINESS

전세계 827개 금융기관과 6,000여개의 기업들이 CDP를 통해 기후변화정보를 공개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CDP는 이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환경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발전하였다.

CDP는 이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DP는 세계은행, UNEP, CERES, WBCSD 등과 함께 WE MEAN BUSINESS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조직화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UN기후변화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465개의 기업과 183개 금융기관이 '과학기반목표설정', '내부탄소가격 도입' 등 WE MEAN BUSINESS의 9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코웨이와 DGB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가 단순히 경제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저탄소 전략이 기업이나 투자자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에 기후변화에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이니셔티브 소개

1. 과학기반목표설정
2. 내부탄소가격 도입
3. 재생에너지 100% 도입
4. 책임 있는 기후변화 정책 인게이지먼트
5. 주류재무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보고
6. 공급망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방지
7. 단기수명온실가스(SLCPs: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감축
8.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약속
9. 수자원 안정성 개선

### WE MEAN BUSINESS 가입 국내 기업

코웨이, DGB금융그룹

90+  
기업  
북아메리카

25+  
기업  
남아메리카

235+  
기업  
유럽

70+  
기업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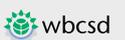
10+  
기업  
호주  
뉴질랜드

20+  
기업  
아프리카



## WE MEAN BUSINESS

economic opportunity through bold climate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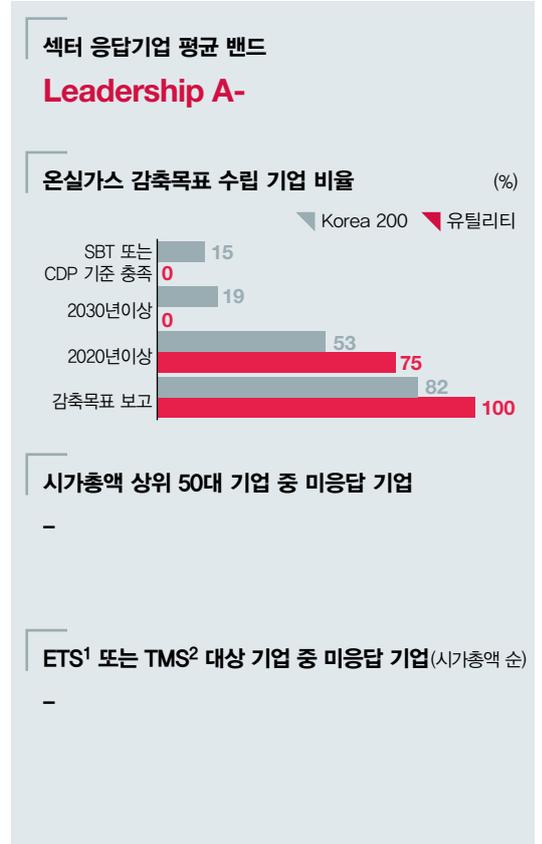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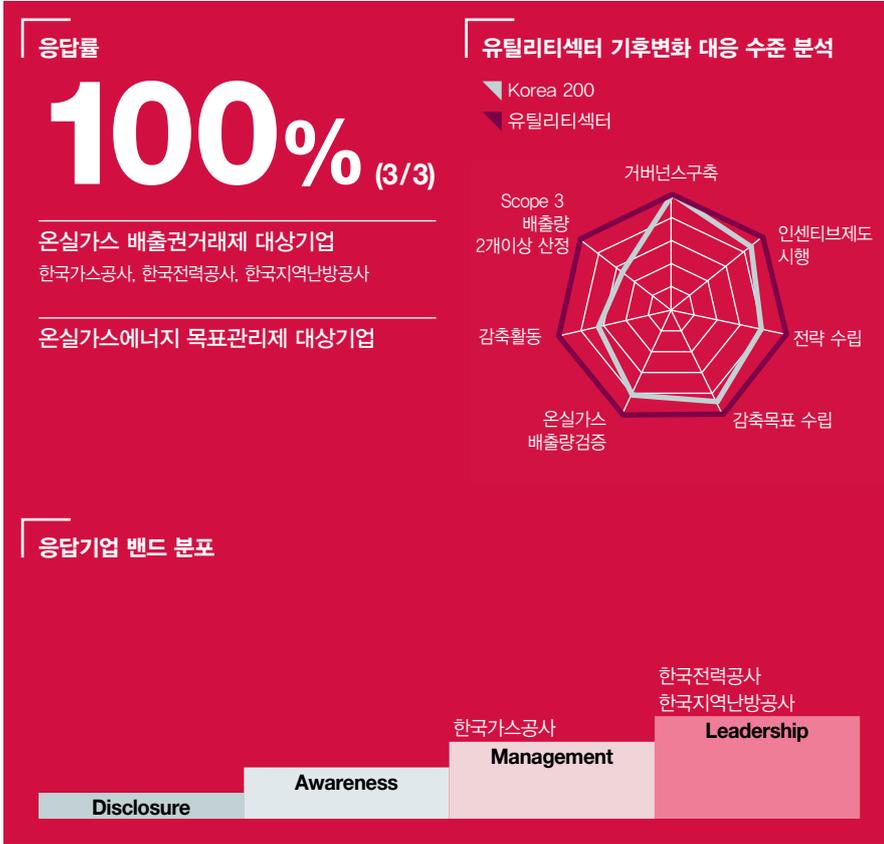




포스코는 원료 사용량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10년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낮은 배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고효율 철강재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고장력 자동차강판은 얇은 두께로 두꺼운 일반 강판과 같은 강도를 얻을 수 있어 가벼운 차량 제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장력 강판으로 제조된 자동차는 연비 향상 효과로 차량 1대당 약 1.8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자동차사와 적극 협력하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정보 공개, 탄소정책 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포스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내 50%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40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비전 아래 지난 30년간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냉·난방을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는 타 난방방식 대비 온실가스를 50%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28% 높아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되는 우수한 에너지 공급방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7년부터 대구지사 매립가스 사업, 강남지사 보일러 연료전환 사업 등 4건의 CDM사업을 UN에 등록하여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버려지는 소각열, 매립가스, 목질계 바이오매스, SRF, 하수열, 태양열 등을 지역난방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영국 카본트러스트사로부터 열과 전기에 대한 글로벌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여 지역난방 소비자의 기후변화 인식 확대를 제고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지역냉방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 끊임없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선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SF<sub>6</sub>가스 고효율(99%) 회수·정제기술을 송·변전분야에 적용하여 2008년 대비 한국전력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3%를 감축하였고, 2016년에는 배전분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간 5천톤의 CO<sub>2</sub>를 감축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회수·정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에서 발생하는 CO<sub>2</sub>를 감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분야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흡수제 기술을 개발하여 10MW급 실증 플랜트에서 3,000시간 연속 운전 성공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F<sub>6</sub> Free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신기후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 계약건강

## 응답률

**8%** (1/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셀트리온, LG생명과학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녹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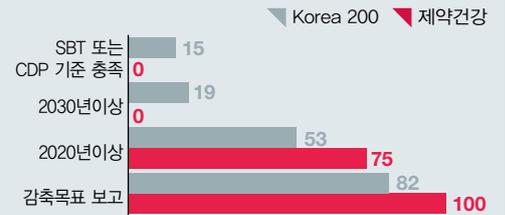
## 계약건강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 섹터 응답기업 평균 밴드

**Leadership A-**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업 비율 (%)



##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셀트리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 ETS<sup>1</sup> 또는 TMS<sup>2</sup>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시가총액 순)

셀트리온, 녹십자

## 응답기업 밴드 분포



## LG생명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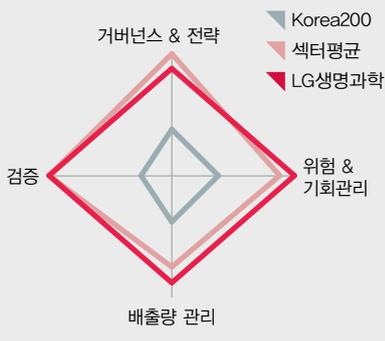
### 감축목표<sup>3</sup>

**2020** 목표연도

**20%** 감축률

2014년 대비 2020년까지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  
20% 감축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측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최대 공적연기금인 ERAFP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Philippe Desfosses, ERAFP CEO



## 내부탄소가격 Internal price of carbon

내부탄소가격은, 배출권거래제(ETS) 또는 탄소세와는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타당성 여부, 신규사업 진출 및 기술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정한 미래의 탄소가격을 말한다. 내부탄소가격의 도입여부는 기업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후변화이슈에 접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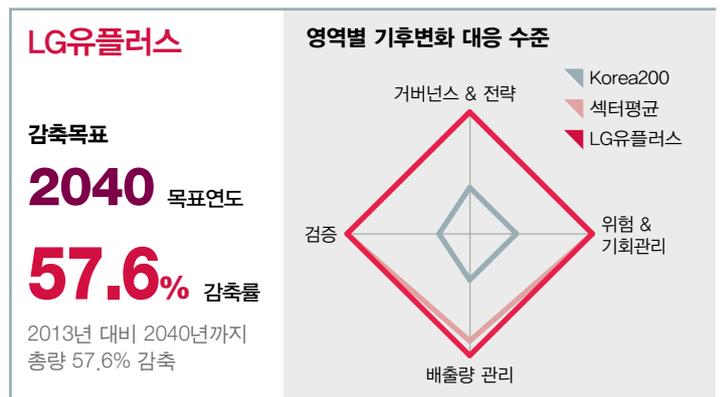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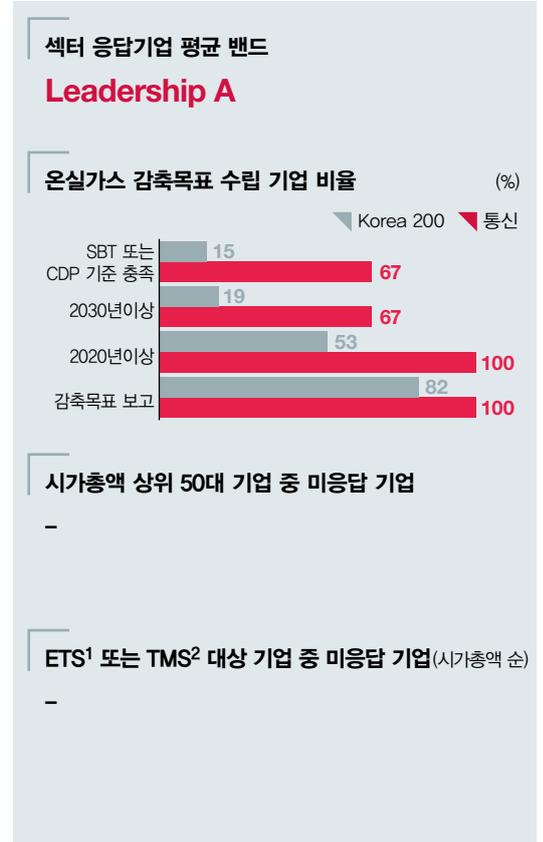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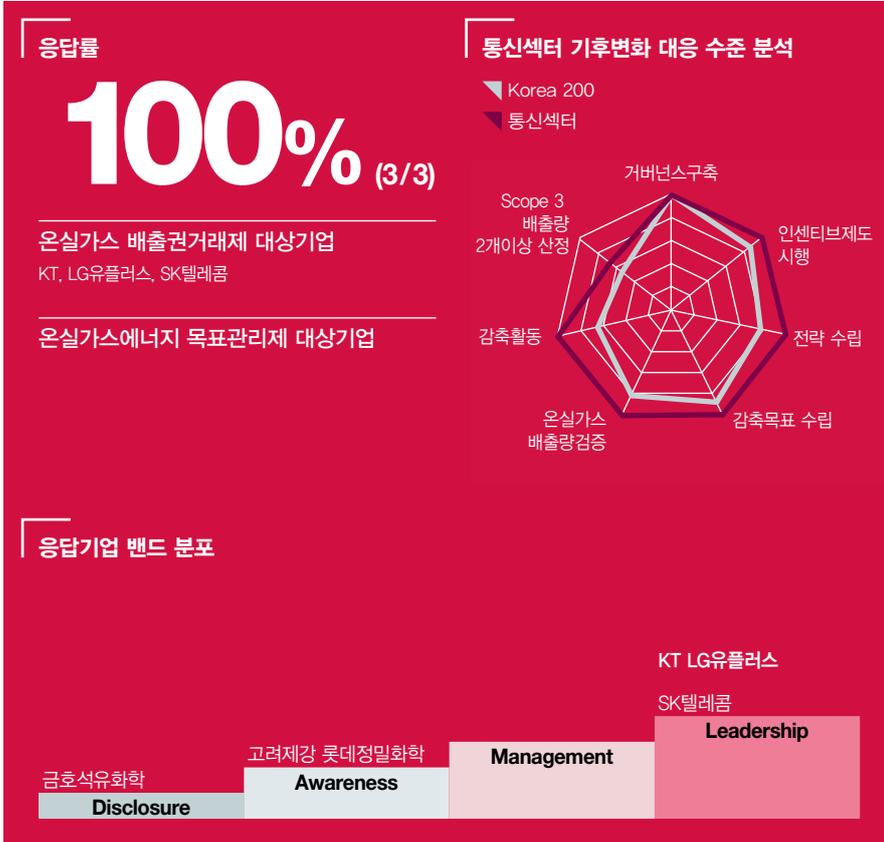
CDP는 내부탄소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트렌트를 분석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9월에 발간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249개 기업이 탄소가격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을 보고하였으며 140개의 기업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탄소가격을 기업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 Embedding a carbon price into business strategy – 를 참조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CDP가 제공하는 기업의 기후변화 데이터는 기후변화 위험의 크기를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Peter Harrison, Schrodgers CEO



친환경경영은 이제 단순히 에너지 감축 차원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미래 성장 엔진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KT는 'Global No.1 KT' 비전 아래 Global 최고 수준의 친환경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규 친환경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KT는 친환경경영을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그린 ICT 컨버전스 영역에서의 신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친환경경영 추진 영역에 따라, KT 비즈니스의 친환경화, 국가/국민 생활의 친환경화, ICT 융합의 신성장 동력화 등 3개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친환경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지속가능경영센터를 신설하고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고 내실 있는 친환경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 환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사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KT는 현 수준을 한 단계 넘어 선 친환경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Scope3 관리 강화 등 내부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KT는 Global No.1 친환경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KT



## 인터뷰 황창규 kt회장 혁신적 ICT 융합 솔루션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 체계 수립을 위한 합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2주간에 걸친 긴 협상 끝에 195개 당사국 모두를 구속하는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골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입니다. 이미 인류는 전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값싸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원자력 발전은 자연 재해 앞에 한 순간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방법을 달리 한다면 기존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러한 ICT 기술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KT는 한국의 통신시장을 리딩해 온 네트워크 관제 역량을 통해 이미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KT는 'Micro Energy Grid' 기술 기반의 복합 에너지 관리 솔루션으로

정확한 에너지 수요를 예측한 뒤, 건물, 공장, 병원 등의 냉난방 설비의 운영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KT는 한국에서 수천킬로 떨어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에너지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이미 핀란드, 미얀마, 미국 등 전 세계 2,100여개 사이트에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표의 한 대형병원은 이 솔루션을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72%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량의 10%에만 적용하더라도 연간 약 6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솔루션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다도 경제성 측면에서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KT는 4개의 CDP 평가영역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전 세계 통신사 중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과거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적인 ICT 융합기술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KT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ICT 시장을 견인하는 리더로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CDP Carbon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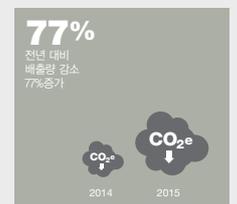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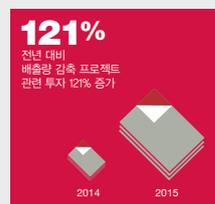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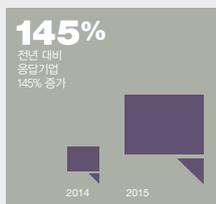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대상기업의 기후 변화정보공개 요청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에 나서고 있다. CDP는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인게이지먼트를 지원하기 위해 카본액션(Carbon Ac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카본액션은 투자자 주도의 기업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다. CDP는 카본액션 참여 금융기관에게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CEO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CDP 참여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 향상을 촉구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25조 달러의 자산을 보

유한 329개 투자기관은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들에게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 ▶ 전년 대비 배출량 저감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개
- ▶ 프로젝트에서 투자자본 수익률 흑자 달성

카본액션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의 탄소경영,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 규제, 운영, 수탁자 의무 등을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수익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필수소비재

## 응답률

# 25% (7/28)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농심, 대상, 롯데제과, 롯데칠성, 매일유업, 삼립식품, 삼양사, 오뚜기, 오리온, 이마트, 하이트진로, CJ제일제당, KT&G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동원F&B, 빙그레, 오뚜기, LG생활건강

## 필수소비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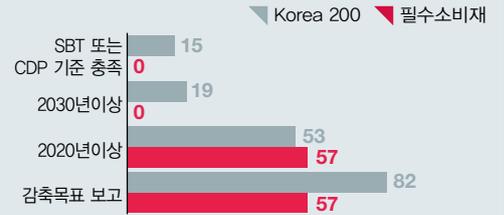
## 응답기업 밴드 분포



## 섹터 응답기업 평균 밴드

### Disclosure D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업 비율 (%)



##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 이마트

## ETS<sup>1</sup> 또는 TMS<sup>2</sup>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시가총액 순)

이마트, 오뚜기, 롯데칠성, 롯데제과, 농심, 삼립식품, 하이트진로, 대상, 빙그레, 매일유업, 동원 F&B, 벡센타이어, 삼양사

## 아모레퍼시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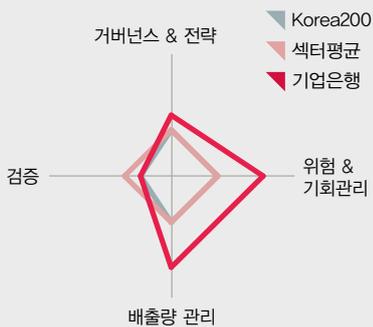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sup>3</sup>

**2020** 목표연도

**46%** 감축률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  
46% 감축



## 아모레퍼시픽그룹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30%** 감축률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  
30% 감축



## CJ제일제당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30%** 감축률

2007년 대비 2020년까지  
제품무게(ton) 당 배출량  
30% 감축



## LG생활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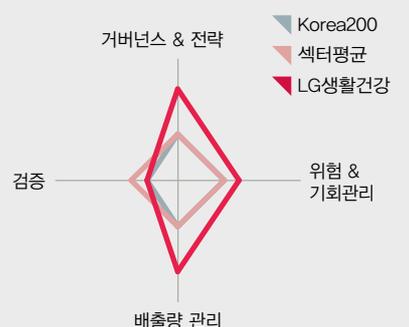
###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 감축목표

**2020** 목표연도

**32%** 감축률

2009년 대비 2020년까지  
제품무게(ton) 당 배출량  
30% 감축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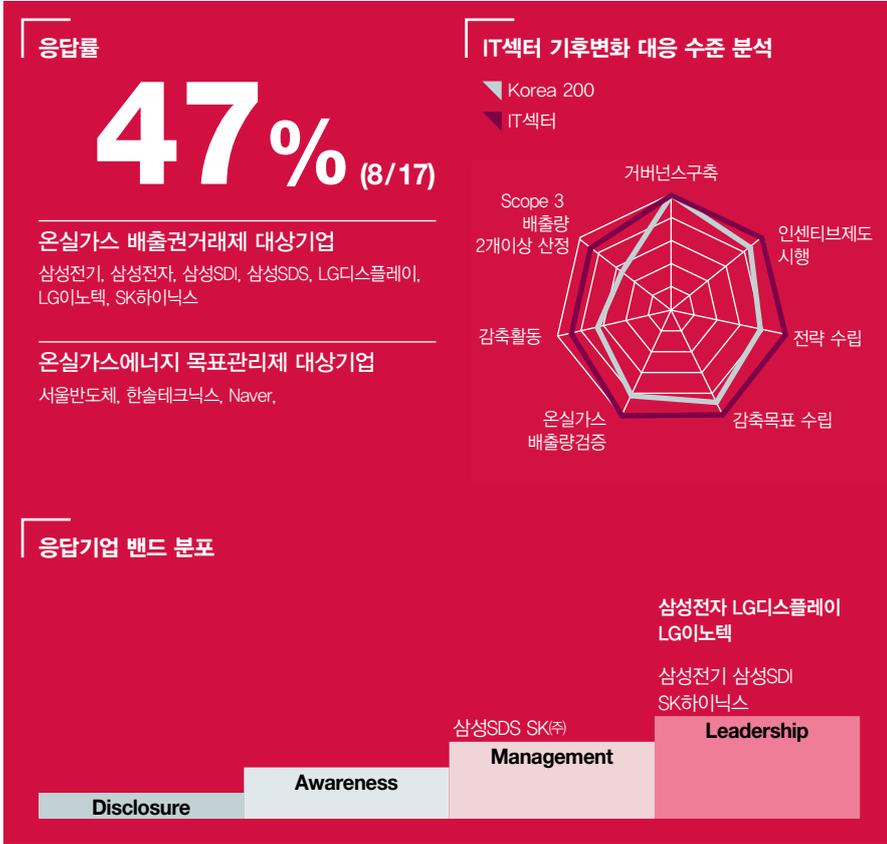


SK하이닉스는 에너지 절감 TF를 통하여 축적된 에너지 절감 노하우를 바탕으로 M14를 차별화된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로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 건축물 운영을 통해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M14의 에너지 고효율 전력 설비로는 LED 등기구, 기계식 국부조명,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냉동시스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해서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배출권 부족분(초과 배출량)의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장치(스크러버) 축정 기술을 개발 및 운영하여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고,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배출권 관리 등의 전사 TF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처리시설 확대, 저전력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 사업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1. 배출권거래제  
2. 목표관리제  
3. 보고된 감축목표 중 가장 장기 목표만 표기



## CDP Supply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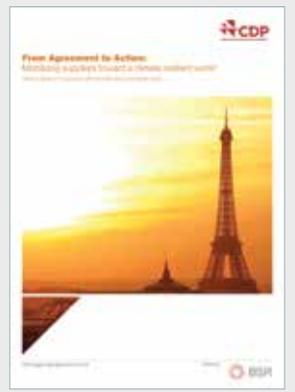
생산의 분업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의 전체 생산과정을 분석하면, 공급망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직접 운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4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업체의 부품조달 차질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기후변화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기후변화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다. CDP의 정보 공개 시스템을 활용한 공급망 기후변화관리 프로그램인 CDP Supply Chain의 이용이 가장 일반적이다.

2016년 기준, 전세계 89개 기업이 CDP Supply Chain의 멤버로 가입하여 자사 공급망의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협력하고 있다. 월마트, 델 등의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연방조달청과 같은 정부도 CDP Supply Chain을 이용하여 공급망의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8,300여 개가 넘는 공급망 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4,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응답하였다.

CDP Supply Chain 질의서는 매니지먼트, 위험&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그리고 Supply Chain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CDP는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제출된 협력업체의 응답을 평가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매년 CDP Supply Chain 보고서를 발간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 89개 기업**  
CDP SC 멤버기업 수
- \$20조**  
CDP SC 멤버기업 구매액
- 4,000+**  
CDP SC 응답 협력업체 수



# 정보공개 주요 통계

## 정보공개 주요 통계

KS1과 KS2를 제외한 모든 분석은 CDP 2016에 응답한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Scope1 또는 Scope2 배출량 공개 기업 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로 입력한 기업 포함하고 있다.

##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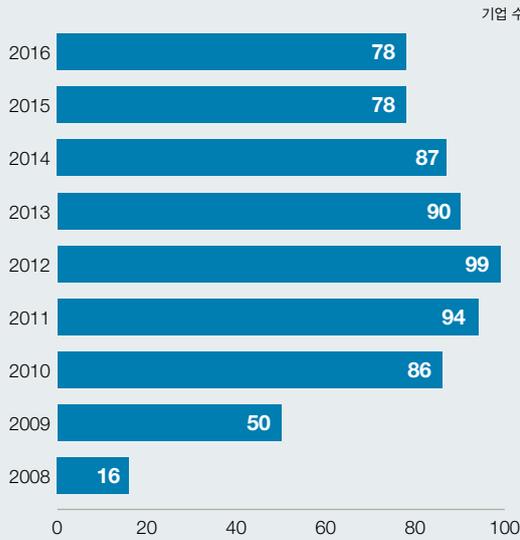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DSB)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기업의 주류 보고서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CDP의 특별 프로젝트이다.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기회가 전략, 재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류 재무보고서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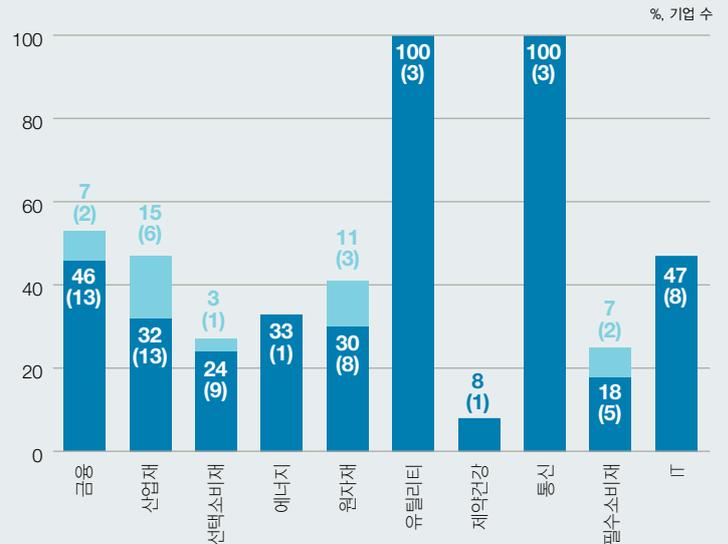
공개/연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CCRF는 기존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비재무보고서의 방법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합보고의 원리를 기후변화 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dsb.net](http://www.cds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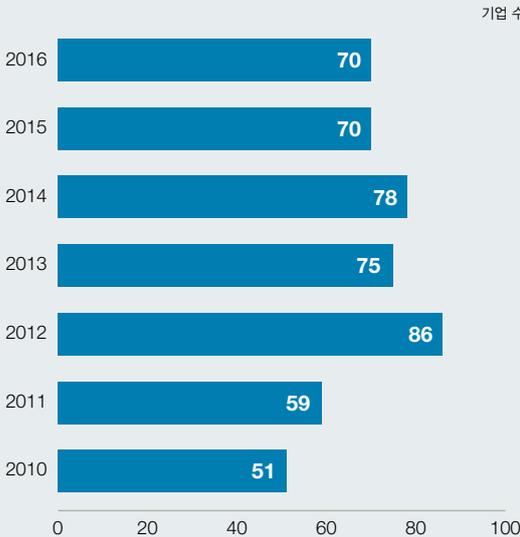
### KS 1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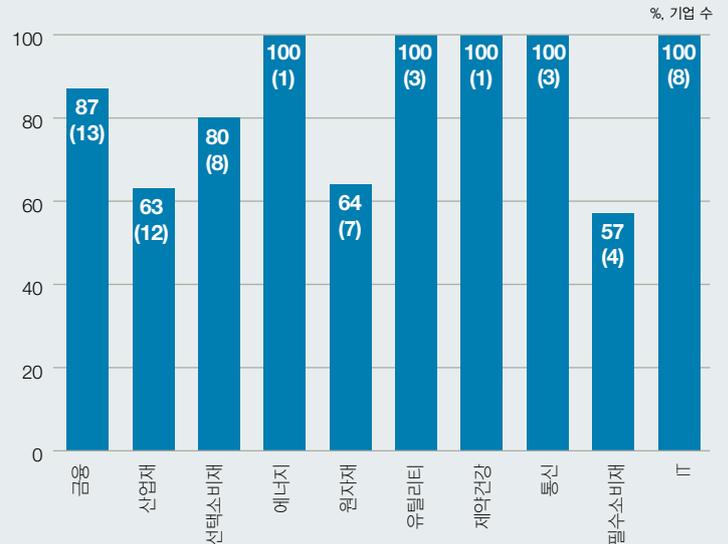
### KS 2 섹터별 응답률



### 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 KS 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 배출량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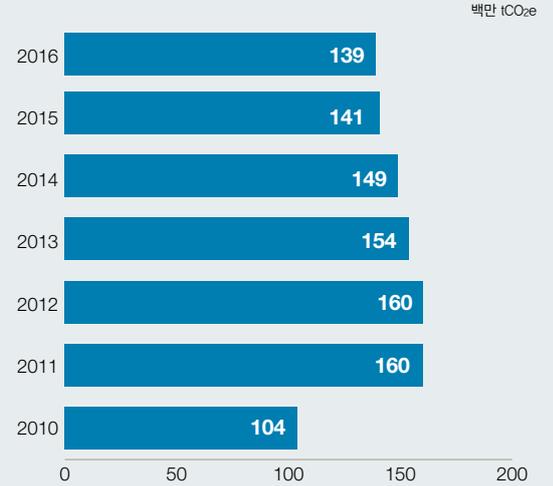
Scope 1, 2 배출량은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기업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이다.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의 15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기업 가운데 배출량 수치가 0(zero)이상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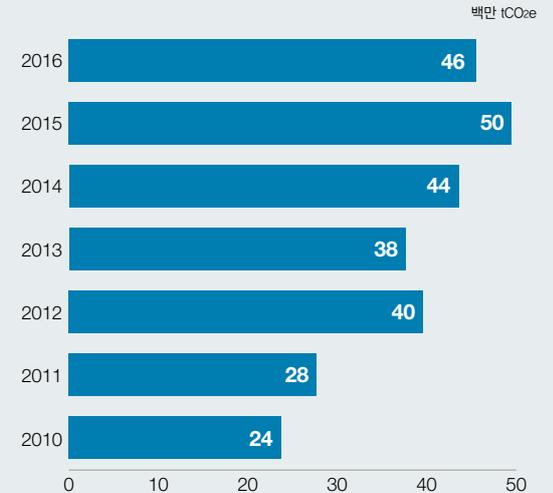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이 두 항목을 통해 보고한 Scope 3 배출은 15개 카테고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질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CDP는 응답서 내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보증을 권장하고 있다. 본 챗터의 검증관련 통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검증/보증”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해당 문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문건이 CDP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을 검증 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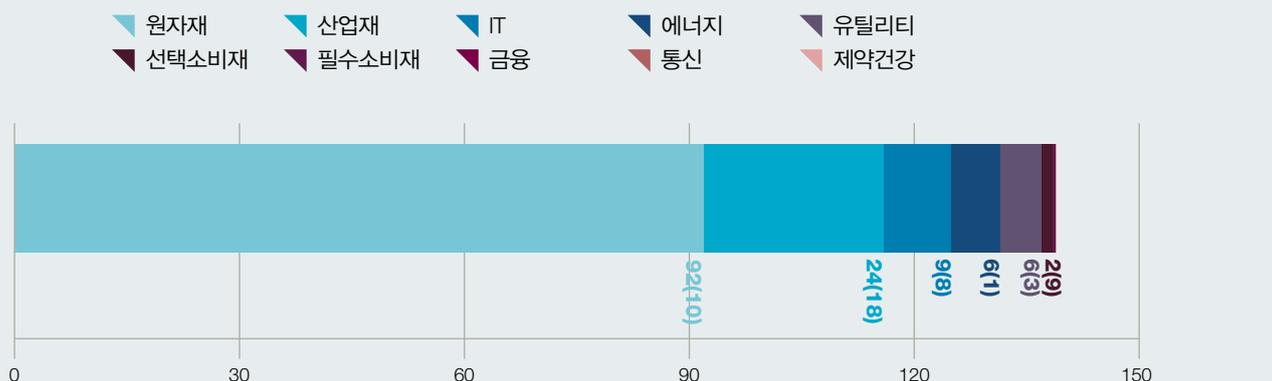
**KS 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KS 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KS 7 섹터별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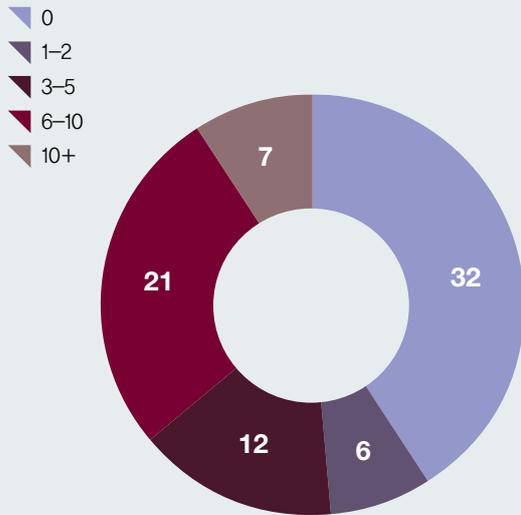
### KS 8 섹터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sub>2</sub>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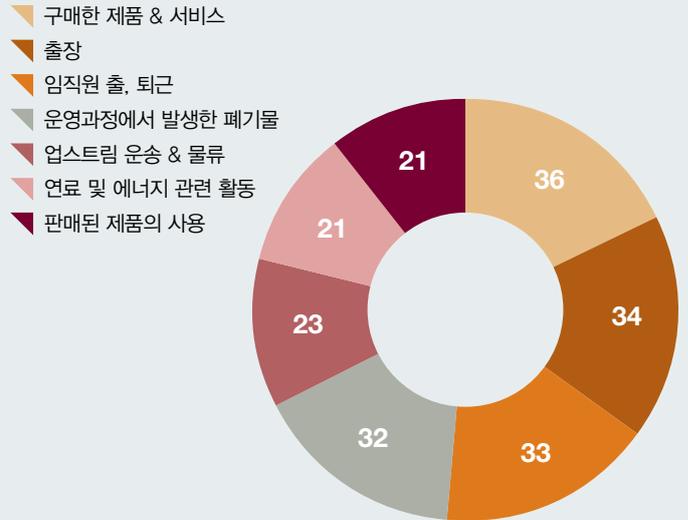
### KS 9 SCOPE 3 배출원 및 배출량 공개기업<sup>1</sup>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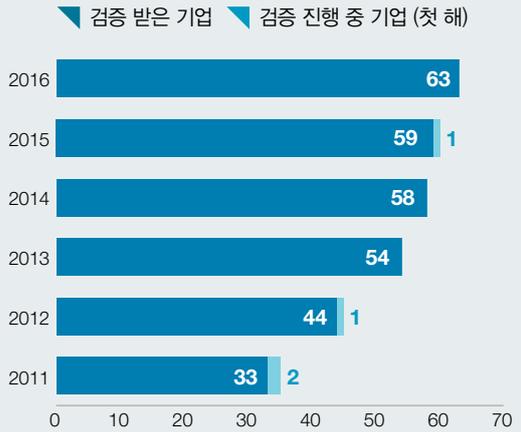
### KS 10 SCOPE 3 주요 배출원<sup>2</sup>

배출원 수



### KS 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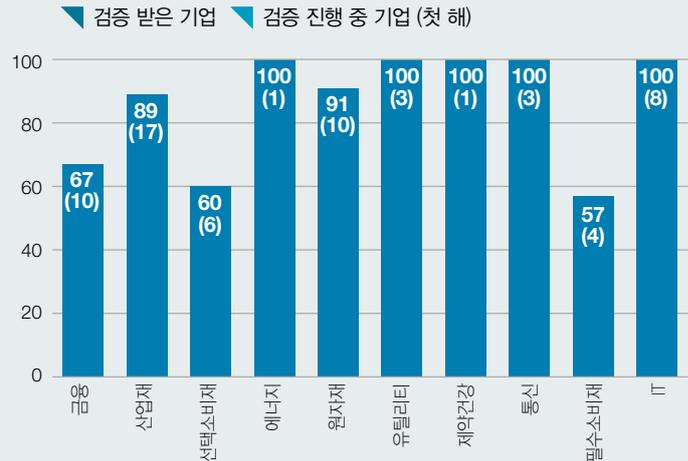
기업 수



(Note: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 KS 12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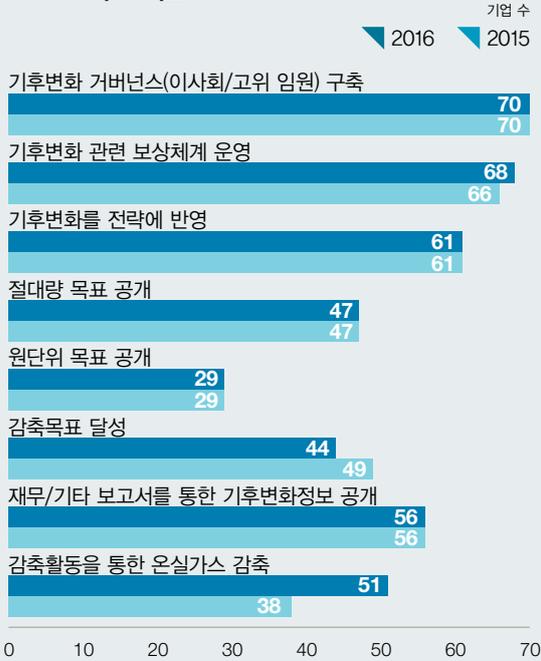
% 기업 수



1. CDP 질의서 14.1 문항에서, 각 카테고리 별로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2.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하고, 배출량을 입력한 기업의 카테고리만 산정  
 3.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 기후변화 성과 주요통계

## KS 13 주요 지표



본 챕터의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 원단위)목표 관련 통계는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표설정단위(원단위 목표의 경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포함하고 있다.

하나 이상의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인센티브를 입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입력한 활동, 목표, 인센티브의 수와 관계 없이 하나로 집계하였다. (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하였다.)

KS13의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공개 여부 관련 통계의 경우, 해당 보고서의 실제 첨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두 기업 통계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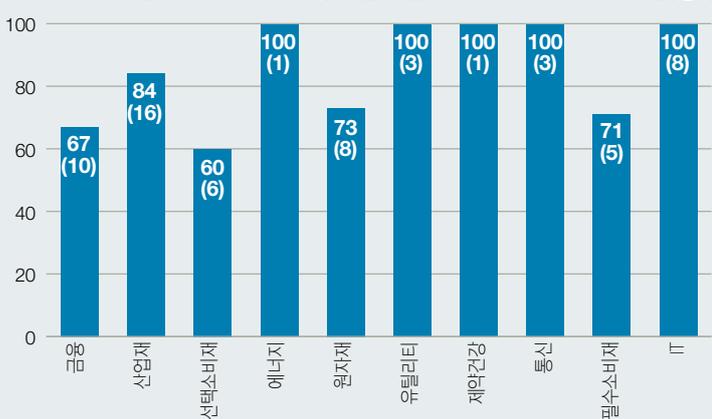
## 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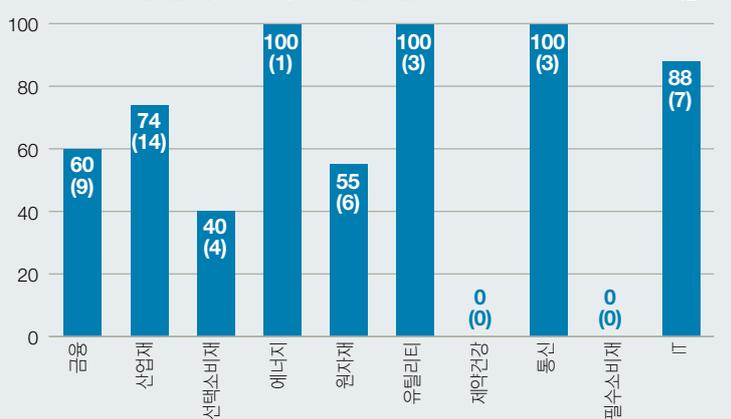
##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 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반영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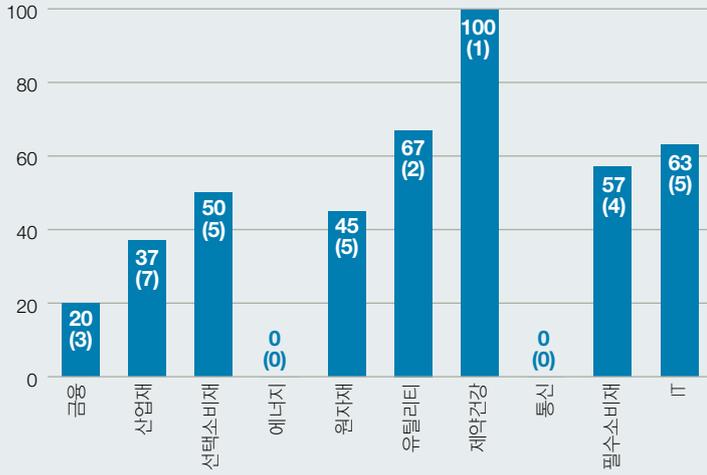


## KS 17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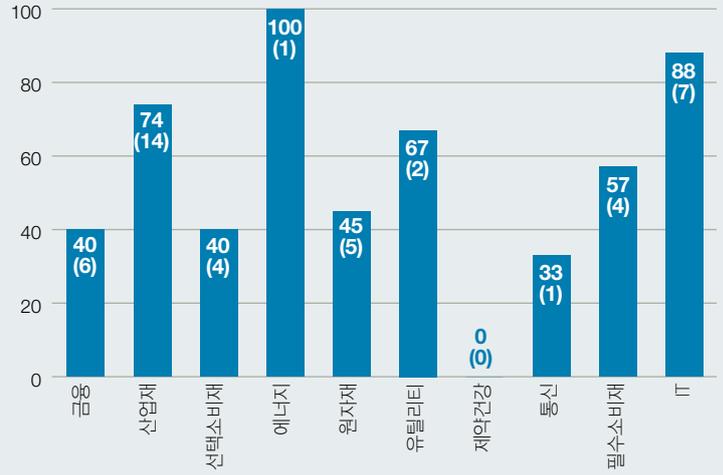
**KS 18**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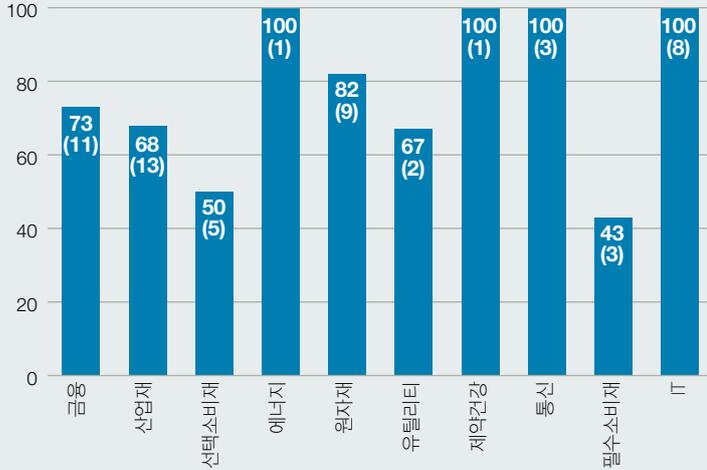
**KS 19** 섹터별 감축 목표 달성 기업 비율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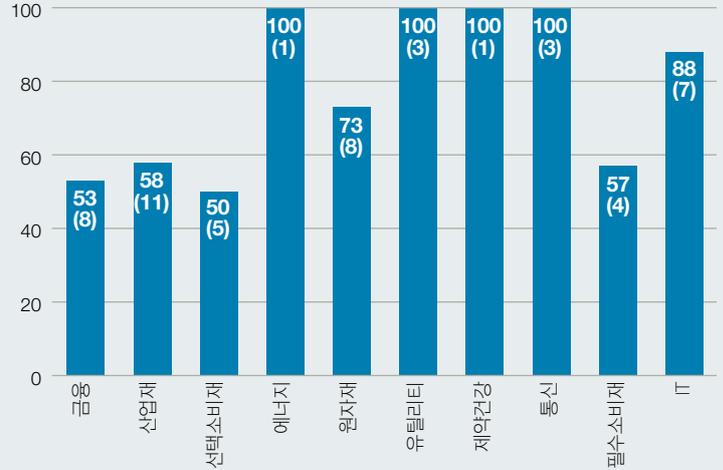
**KS 20** 섹터별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sup>1</sup>

% 기업 수



**KS 21** 섹터별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업 비율

% 기업 수



신한금융그룹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버터, LED조명 및 빙축열 냉방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에너지절약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점별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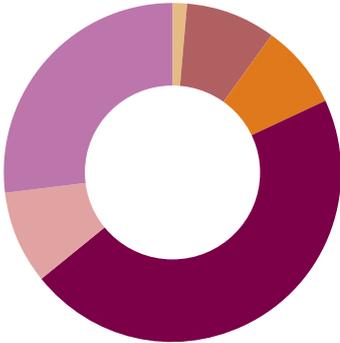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

1. 재무 또는 기타 보고서 첨부 기업만 산정

# 부록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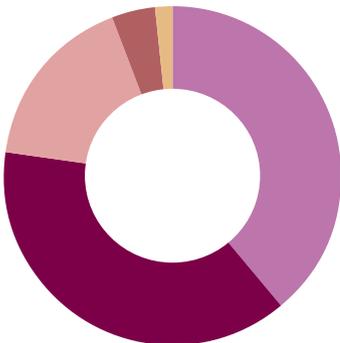
## CDP investor signatories and members

### 1. CDP 서명기관 지역 분포



- ▶ 유럽  
- 382 = 46%
- ▶ 북아메리카  
- 223 = 27%
- ▶ 중앙&남아메리카  
- 73 = 9%
- ▶ 아시아  
- 71 = 9%
- ▶ 호주&뉴질랜드  
- 67 = 8%
- ▶ 아프리카  
- 13 = 1%

### 2. 서명기관 유형



- ▶ 자산 운용사  
- 363 = 40%
- ▶ 자산 소유사(Asset Owners)  
- 256 = 30%
- ▶ 은행  
- 158 = 19%
- ▶ 보험사  
- 39 = 5%
- ▶ 기타  
- 13 = 2%

2016년 기준 827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운용자산: 100조 달러)이 참여하고 있는 CDP의 투자자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의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수자원 불안정, 삼림벌채에 대응하여 전세계 도시와 기업이 CDP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시리즈는 투자자의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CDP가 제공하는 분석데이터는 투자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CDP가 제공하는 통찰은 보다 높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명기관 또는 투자자 멤버 가입 및 혜택을 포함한 CDP 투자자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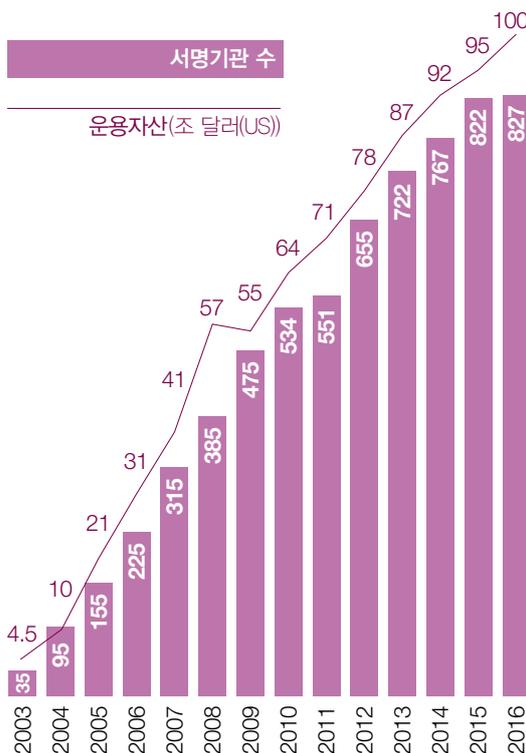
<https://www.cdp.net/Documents/Brochures/investor-initiatives-brochure-2016.pdf>

서명기관 전체 리스트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cdp.net/en-US/Programmes/Pages/Sig-Investor-List.aspx>

### 3. 서명기관 변화



### Investor members

ACTIAM
AEGON N.V.
Allianz Global Investors
ATP Group
Aviva Investors
AXA Group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endigo and Adelaide Bank
BlackRock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LLC
BP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vert Investment Management, Inc
Capricorn Investment Group
Catholic Super
CCLA Investment Management Ltd
DEXUS Property Group
Etica SGR
Fachesf
FAPES
Fundação Itaú Unibanco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Henderson Global Investors
Hermes Fund Managers
HSBC Holdings plc
Infraprev
KeyCorp
KLP
Legg Mason, Inc.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
Maine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Morgan Stanley
National Australia Bank
NEI Investments
Neuberger Berman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Nordea Investment Management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Overlook Investments Limited
PFA Pension
POSTALIS - Instituto de Seguridade Social dos Correios e Telégrafos
PREVI
Rathbone Greenbank Investments
Real Grandeza
Robeco
RobecoSAM AG
Rockefeller & Co.
Royal Bank of Canada
Sampension KP Livsforsikring A/S
Schroders
SEB AB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Inc
Sustainable Insight Capital Management
TIAA
Terra Alpha Investments LLC
The Sustainability Group
The Wellcome Trust
UBS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Toronto
Whitley Asset Management

## 부록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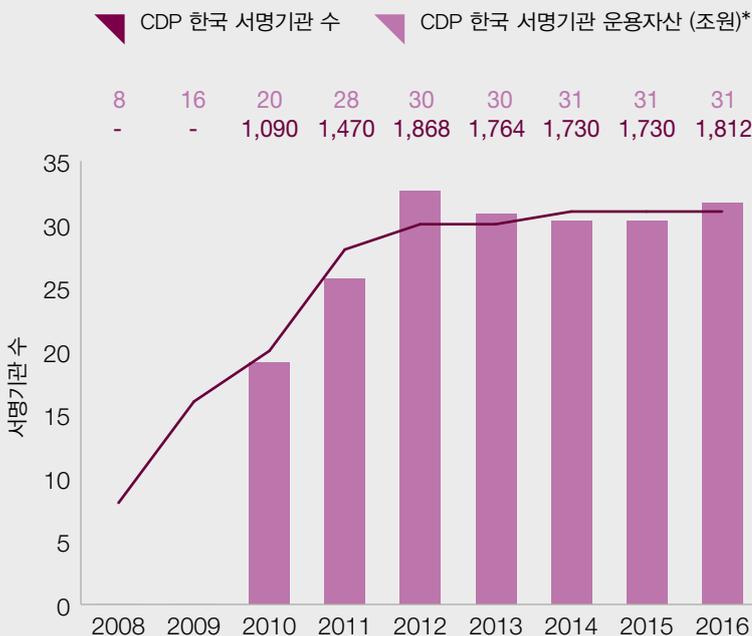
### CDP Korea investor signatories

# 31

2016년 2월 1일 기준,  
31개의 국내 금융기관  
(운용자산: 1,812조원)이  
CDP 2016의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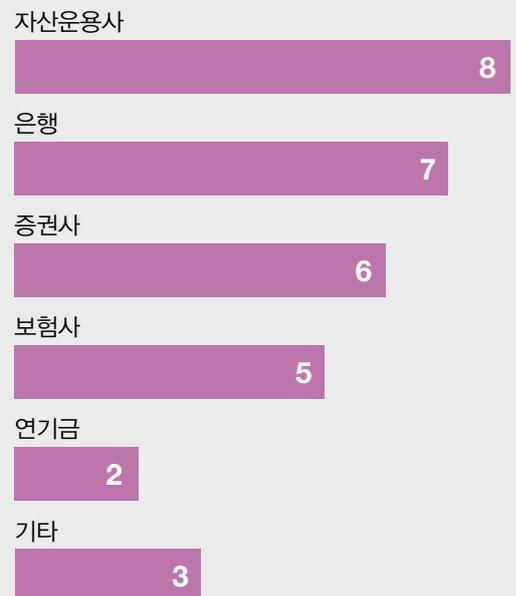
기업은행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구은행	우리은행
대성투자자문	템피스투자자문
동부화재	한국기술보증기금
마이다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대우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해상화재
부산은행	IBK증권
사학연금	KB국민은행
삼성생명	KD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LIG손해보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삼성화재	NH-CA자산운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Q캐피탈파트너스
신한은행	

CDP Investor 서명기관 수 및 운용자산



\* 달러(US) 표기 자산 환전·환율 1,100원

CDP 한국 서명기관 유형



# 부록 III CDP 2016 그룹별 참여현황

그룹명	CDP 점수	기업명
삼성	Leadership A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A-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화재
	Management B	삼성SDS
		삼성중공업
	Awareness C	삼성증권
	Disclosure D	제일기획
		호텔신라
	F	삼성생명
삼성카드*		
		에스원*
LG	Leadership A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A-	(주)LG
		LG생명과학
	Management B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Awareness C	LG상사
SK	Leadership A-	SK 하이닉스
		SK텔레콤
Management B	SK(주)	
	SKC*	
	SK네트웍스*	
	SK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A-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F	기아자동차*
현대로템*		
		현대위아*

그룹명	CDP 점수	기업명	
롯데	Leadership A-	롯데케미칼	
	Awareness C	롯데정밀화학	
		F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CJ	Management B	CJ제일제당	
		F	CJ CGV*
		CJ E&M*	
		CJ대한통운*	
		CJ오쇼핑*	
		CJ(주)*	
한화	Awareness C	(주)한화	
	F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GS	Leadership A-	GS건설	
	F	(주)GS*	
			GS리테일*
금호아시아나	Disclosure D	금호석유화학	
	F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두산	Leadership A-	두산중공업	
	Awareness C	(주)두산	
	F	두산인프라코어	
메리츠금융	F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포스코	Leadership A-	포스코	
	F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켄텍*
한국전력	Leadership A	한국전력공사	
	F	한전KPS*	
			한전기술*
한솔	Management B	한솔제지	
	F	한솔케미칼	
			한솔테크닉스
현대백화점	F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그룹명	CDP 점수	기업명
KB금융	Disclosure D	KB금융그룹
		D-
LIG	F	LIG넥스원
LS	Management B	LS산전
Naver	F	Naver
		NHN엔터테인먼트*
녹십자	F	녹십자
동부	Management B	동부화재
미래에셋	Management B	미래에셋대우
신세계	F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Leadership A-	아모레퍼시픽그룹
	Management B	아모레퍼시픽
영풍	F	고려아연*
코오롱	AQ(L)	코오롱인더스트리
	F	코오롱생명과학
한국타이어	Leadership A-	한국타이어
	Disclosure D-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진	Awareness C	대한항공
	F	(주)한진
현대중공업	Awareness C	현대중공업
	F	현대미포조선*

1. AQ(L): 마감기간 이후에 제출하여 평가 되지 않음.  
2. F: 미응답기업

# 부록 IV CDP 2016 Korea 20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업종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검토	기타 정보	지속가능 발전목표
아모레퍼시픽	필수소비재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6,277	25,176	-	VAA S1, S2	원단위
아모레퍼시픽그룹	필수소비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6,277	25,177	-	VAA S1, S2	원단위
아시아나항공*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BGF리테일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빙그레*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BNK금융그룹	금융	Disclosure D-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19,620	27,001	-	-	-
백산	산업재	F (무응답)													
셀트리온*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L)						
제일기획	선택소비재	Disclosure D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CJ주*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CJ CGV*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CJ제일제당	필수소비재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305,905	163,421	3	VAA S1, S2	원단위
CJ E&M*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CJ오쇼핑*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코데즈 컴바인	선택소비재	F (무응답)													
컴투스*	IT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코스맥스	필수소비재	응답(L)	응답	무응답	무응답										
코웨이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391	5,369	10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쿠쿠전자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대림산업	산업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상*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대우건설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1,529	54,981	6	VAA S1, S2, S3	절대량
대우인테리어서비스*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우조선해양	산업재	Disclosure D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36,891	244,710	-	VAA S1, S2	절대량
카카오*	IT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DGB금융그룹	금융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2,770	15,362	7	VAA S1, S2, S3	원단위
동아타이어공업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동아ST*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부하이텍	원자재	F (무응답)													
동부화재	금융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3,034	21,750	-	VAA S1, S2 VAR S3	절대량
동서*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동원F&B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동원시스템즈	IT	F (무응답)	무응답												
(주)두산	산업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두산중공업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	126,836	150,451	3	VAA S1, S2	절대량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이마트*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오테크닉스	IT	F (무응답)	무응답												
GKL*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방전자*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녹십자	제약건강	F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녹십자홀딩스*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GS건설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74,022	66,056	1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주)GS*	에너지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GS리테일*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라비스테온공조*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 부록 IV CDP 2016 Korea 20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업종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포고수 기준	기타정보	지속가능성 지표
하나금융그룹	금융	Leadership A-	응답(L)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	1,947	25,376	3	VAA S1, S2, S3	절대량
하나투어*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한일시멘트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주)한진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한국타이어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250,838	951,398	7	VAA S1, S2	원단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금융	Disclosure D-	응답	응답	응답										
한미약품*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거부						
한미사이언스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한세실업	선택소비재	Disclosure D	응답(L)	응답	응답						895	16,107	-		- 원단위
한솔케미칼	원자재	F (무응답)													
한솔테크닉스	IT	F (무응답)													
한샘*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화케미칼	원자재	F (응답거부)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주)한화	원자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한화생명*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무응답								
한화테크윈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호텔신라	선택소비재	Disclosure D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무응답			5,992	15,476	-	VAR S1, S2	절대량
휴켄스*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L)							
효성	원자재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현대백화점*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산업개발*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건설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421,556	168,813	9	VAA S1, S2, S3	절대량
현대엘리베이터*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글로벌비스	산업재	Leadership A-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5,723,303	5,557	3	VAA S1, S2	원단위
현대그린푸드*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중공업	산업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385,210	574,065	-	VAA S1, S2	절대량
현대홈쇼핑*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현대해상	금융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2,705	19,652	2		- 원단위
현대미포조선*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모비스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30,617	261,617	3	VAA S1, S2 VAR S3	원단위
현대자동차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816,952	1,753,243	11	VAA S1, S2	원단위
현대로템*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증권	금융	Disclosure D-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현대제철	원자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4,157,457	5,415,766	4	VAA S1, S2 VAR S3	원단위
현대위아*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기업은행	금융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10,952	52,197	-	VAA S1, S2	절대량
이노션	선택소비재	F (무응답)													
아이에스동서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잇츠스킨	필수소비재	F (무응답)													
제주항공	산업재	F (무응답)													
강원랜드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KB금융그룹	금융	Disclosure D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23,560	152,693	-	VAA S1, S2	절대량
KCC	산업재	Disclosure D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097,242	389,205	-	VAR S1, S2	절대량
한전기술*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전KPS*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 부록 IV CDP 2016 Korea 20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업종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서 검토	지속가능 지표
기아자동차*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고려제강	원자재	Awareness C-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응답거부			68,213	201,419	-	VAA S1, S2 절대량
키움증권*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콜마비엔에이지	필수소비재	F (무응답)												
코오롱인더스트리	원자재	응답(L)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129,330	-		-
코오롱생명과학	제약건강	F (무응답)												
코미팜	제약건강	F (무응답)												
한국항공우주*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4,019,980	110,937	9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한국전력공사	유틸리티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응답	1,148,999	160,256	10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CJ대한통운*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56,413	352,277	6	VAA S1, S2 절대량
한국금융그룹*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한국콜마*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한유화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고려아연*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한항공	산업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코리안리*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KT	통신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1,355	1,054,698	12	VAA S1, S2, S3 절대량
KT&G	필수소비재	Disclosure D-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금호석유화학	원자재	Disclosure D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	-	-	VAR S1, S2 절대량
금호타이어*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LG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LG화학	원자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4,911,332	3,754,418	12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LG디스플레이	IT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532,525	3,490,745	7	VAA S1, S2, S3 절대량
LG전자	선택소비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11,762	698,372	11	VAA S1, S2, S3 절대량
LG하우시스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LG생활건강	필수소비재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5,917	37,201	6	VAA S1, S2, S3 원단위
LG이노텍	IT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23,779	298,458	10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LG상사	산업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LG생명과학	제약건강	Leadership A-	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7,507	52,148	4	VAA S1, S2, S3 원단위
LG유플러스	통신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6,714	1,023,956	6	VAA S1, S2, S3 절대량
LIG손해보험*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LIG넥스원	산업재	F (무응답)												
로엔엔터테인먼트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롯데케미칼	원자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4,199,336	1,431,627	7	VAA S1, S2 절대량&원단위
롯데칠성*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롯데제과*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롯데정밀화학	원자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114,702	580,256		VAA S1, S2 절대량
롯데하이마트*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롯데푸드*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롯데쇼핑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주)LS*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LS산전	산업재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344,662	27,493	1	VAA S1, S2 원단위
맥쿼리인프라*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매일유업*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부록 IV CDP 2016 Korea 20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업종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수 검증	절대량 기준
만도	선택소비재	Disclosure D-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	-	- 절대량
메디톡스*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금융그룹*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화재*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증권*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미래에셋대우	금융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578	13,750	3	VAA S1, S2, S3 절대량
미래에셋증권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Naver	IT	F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NC소프트*	IT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L)					
넥센타이어	선택소비재	F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NH투자증권	금융	Disclosure D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NHN엔터테인먼트*	IT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농심*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OCI(주)*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응답거부	응답				
SK머티리얼즈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오리온	필수소비재	응답(L)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오스템임플란트	제약건강	F (무응답)												
오투기*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팬오션	산업재	F (무응답)												
파라다이스*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풍산	원자재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포스코	원자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68,150,000	4,190,000	6	VAA S1, S2, S3 원단위
포스코켄텍*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T모티브	선택소비재	응답(L)	응답(L)								30,001	30,001		절대량
에스원*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삼립식품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삼성물산	산업재	Leadership A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221,970	152,000	8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카드*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삼성전기	IT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62,725	914,035	12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전자	IT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2,445,000	7,747,000	14	VAA S1, S2, S3 원단위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재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140,005	15,182	10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화재	금융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5,654	25,912	4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중공업	산업재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200,441	226,737	5	VAA S1, S2, S3 절대량
삼성생명	금융	F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삼성SDI	IT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100,978	785,961	7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SDS	IT	Management B	무응답								4,124	89,586	-	VAA S1, S2 절대량
삼성증권	금융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855	5,106	-	VAR S1, S2 -
삼양사*	필수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삼양홀딩스	필수소비재	F (무응답)												
세아베스틸*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서울반도체*	IT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신한금융그룹	금융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17,098	82,959	10	VAA S1, S2, S3 절대량
신세계*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SK케미칼	원자재	F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SK(주)	IT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472	33,536	6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SK 하이닉스	IT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1,889,051	2,997,368	13	VAA S1, S2, S3 절대량

# 부록 IV

## CDP 2016 Korea 20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업종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검증	절대량
SK이노베이션*	에너지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SK네트웍스*	산업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텔레콤	통신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	응답	8,447	677,687	1	VAA S1, S2 절대량
SKC*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Oil	에너지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6,380,470	985,632	6	VAA S1, S2, S3 절대량
쌍용양회*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쌍용자동차*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태광산업*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한전선	산업재	Disclosure D-									-	-	-	- 절대량
동양생명*	금융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도레이케미칼*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바이로메드*	제약건강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우리은행	금융	Management B	응답								15,548	76,275	3	VAA S1, S2 절대량
영풍*	원자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영원무역*	선택소비재	F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덕전자	SSC	응답(L)	응답	응답	응답	응답					3,083	-		
심텍	SSC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					5,452	77,558		VAA S1, S2 절대량
은성텍스타일	SSC	응답(L)									290	290		
중산인터내셔널	SSC	Disclosure D									10,076	11,202		VAA S1 절대량
파트론	SSC	응답(L)									-	-		
한국동서발전	SSC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					37,837,150	113,627	11	VAA S1, S2 절대량
한국철도공사	SSC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					411,499	1,243,328		VAA S1, S2 절대량
한솔제지	SSC	Management B	응답								247,848	610,662		VAA S1, S2 절대량
한화그룹	SSC	응답(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	응답								
SK건설	SSC	응답(비공개)		응답										

### 1. 응답

- **응답(L)**: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 반영
-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 2. 섹터

- **GICS**(글로벌표준산업분류) 섹터 분류 적용
- **SSC**: Korea200 샘플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응답한 기업

### 3. 검증

- **VAR**: 검증/보증 보고, "검증 완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작년 문서 첨부"를 선택하였으나, 실제 평가 가능한 검증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된 문서가 CDP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VAF**: 검증/보증 진행 중 (첫 해). 검증 진행 중이나 올해가 검증을 받는 첫 번째 해 이므로 검증관련 문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VAA**: 검증/보증 승인, 보고연도 검증의견서 또는 지난해 문서를 첨부하였고, 해당 문서가 CDP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S1**: Scope 1 배출량 검증.
- **S2**: Scope 2 배출량 검증
- **S3**: Scope 3 배출량 검증

### CDP Contacts

#### Sue Howells

Co-Chief Operating Officer

#### Daniel Turner

Head of Disclosure

#### James Hulse

Head of Investor Initiatives

#### Antigone Theodorou

Director, Global operations

#### CDP

Level 3  
71 Queen Victoria Street  
London  
EC4V 4AY  
United Kingdom  
Tel: +44 (0)20 3818 3900  
www.cdp.net  
info@cdp.net

###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 장지인

위원장

####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 송호상

부위원장

#### 이종오

사무국장

#### 김태한

연구원

#### 강가경

연구원

####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korea@cdp.net

### EY한영 Contacts (한국 평가파트너)

#### 정영일

파트너

#### 장혁수

팀장

#### 구형남

매니저

#### 김지선

시니어컨설턴트

#### 최강호

컨설턴트

#### EY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Tel: +82 (0)2 3787 6600  
www.ey.com  
hyuk-soo.jang@kr.ey.com

### CDP 한국 자문위원회

#### 장지인

위원장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 양춘승

실무위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 정영일

실무위원  
EY한영 파트너

#### 정해봉

실무위원  
에코프론티어 대표